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2023.06.19-25

No.709



6·25참전유공자 '영웅의 제복' 만든 김석원 디자이너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부산 현장 체험을 가다
"살려줘" 외치면 119 달려온다
아픈 아이들을 꼬마 작가로... '민들레마음'을 아십니까



12명의 대통령 손때 묻은 삶 청와대 모였다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



식중독 예방 6가지 방법 지켜요!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C
(어패류는 85°C)
1분 이상 익히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
깨끗이 세척·소독 하기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은 5°C 이하
냉동식품은 -18°C 이하



윤영미

S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최초의 여성 프로야구
캐스터다. 현재는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산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주 무모한집을
소개하며 뉴미디어를
향해 순항 중인 열정의
소유자.

‘밥’으로부터의 해방

“오늘 뭐 먹고 싶어?”(남편)

“음... 당신이 해주는 거.”(아내)

나와 친한 권은순 디자이너 부부의 대화다. 이 부부는 결혼 생활 중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 희한한 부부인데 비결 중 하나가 바로 ‘밥’이다. 평생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한 남편은 음악과 사진 전문가인데 사고방식은 평범한 대한민국 중년 남자다. 아내는 패션과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바쁜 삶을 이어왔다. 시간과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밥은 먹고 싶은 사람이 해먹거나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굳이 아내가 전담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고도 이 부부는 분란 없이 내내 평화롭게 지낸다.

반면 내가 아는 아티스트의 부인은 일흔이 넘어서도 아침마다 12첩 반상을 차린다. 또 다른 지인은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저녁 즈음이면 좌불안석이 된다. 결국 남편의 저녁 밥상을 차리러 바지런히 들어간다. 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남편의 밥 때문에 며칠 전부터 국을 끓여 얼려두고 가지가지 찬을 만들어 반찬통에 착착 쟁여둔다. 그럼에도 여행을 다녀온 후 보면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라고 올상이다.

밥 정이니, 밥상머리 교육이니, 아침밥을 얻어먹느니, 집밥의 힘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밥에 집착하고 아내들도 자신의 존재를 밥으로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몇 년 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엄마 라미란은 여행을 다녀오며 집안이 엉망일 줄 알았다. 그런데 정돈이 잘돼 있고 식구들이 밥도 잘 챙겨먹어 외려 존재감 상실로 덜컥 주저앉는 장면이 내겐 충격이었다. 어쩌면 여성들 스스로가 밥으로 인정받으려 하고 밥을 통해 식구들을 통제(?)하려 했던 건 아닌지.

결국 밥으로부터 해방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남편이 설거지 하다 그릇을 깨면 ‘아이고, 저리 비켜. 내가 하고 말지’ 하지 말고 ‘잘한다’며 엉덩이 팍팍 두드려 주고, ‘집안일 도와 달라’ 하지 말고 ‘우리집 일이니 당연히 같이해야 하는 일’로 인식시켜야 한다.

요즘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도 잘돼 있다. 묶음으로 두 손 가득 사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시켜 먹거나 집 앞에 나가 한 끼 사 먹는 게 돈도 시간도 절약이다. 나는 쇠고기배춧국 한번 시켜먹고는 깜짝 놀랐다. 너무 맛있어서. 쇠고기랑 배추 사서 한 끼 먹으려면 버리는 게 태반이고 적은 양은 또 팔지도 않는다. 싱크대에 매달려 뜨거운 불 앞에서 시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집 앞 카페에 나가 책을 읽거나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게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길이다.

자, 이제 “간단하게 국수나 해먹을까?” 하는 남편 얘기에 “응, 당신이 해주는 간단한 국수”라고 하자. 국수가 간단하다고 누가 그러던가. 물 끓이고 국수 삶고 간 해야지, 고명 썰어 얹고 김치도 꺼내야지, 그렇게 간단하면 당신이 좀 해보라고! **K**

도대체 얼마나 깊은 인연이기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치며 지나갑니다. 비록 그들의 얼굴을 관심있게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나와 깊은 인연이 있을 것입니다. 옷깃 한 번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에 나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은기의 <태양안에서-인연>은 실과 물감이 만나 독특한 질감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실타래가 얹히고 설켜 있습니다. 각각의 실은 제각각이지만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뒤엉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규칙하에 통일성있게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진 모습이 마치 꿈틀거리는 에너지가 응축된 거대한 뿌리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모체 삼아 새싹이 나고 꽃들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태양계의 행성인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인연만으로도 우리는 한 뿌리에서 피어난 새싹과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새싹입니다. 그러니 나와 가까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

조정욱 미술평론가

김은기, <태양안에서-인연>, 유화, 72.7x60.6cm, 작가 소장







2023.06.19-25
No.709

정책주간지

gonggam.korea.kr

K-공감

발행일 2023년 6월 19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박보균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6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 삼화인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 851-0183

〈K-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커버스토리

12명의 대통령 손때 묻은 삶 청와대 모였다

-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 | 우리 대통령들은 어떤 물건들을 가장 아꼈을까?
-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인터뷰
- »청와대 이야기 | 금수강산도 얼마나 크기에



표지사진 C영상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K-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i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세대공감 인세대의 생각

- 01** 윤영미
‘밥’으로부터의 해방

공감갤러리

- 02** 김은기
〈태양안에서-인연〉

정책 돋보기

지금 용산은

- 16** 역대 최대 규모 '화력격멸훈련' 주관
“국군이 지키는 평화”

알쓸정책

- 20** 반도체 ‘초격차’ 확보, 특성화대학 8곳 선정 외

정책

- 24** “올여름 전력수급 안정적”
25 “살려줘” 외치면 119 출동한다

돈 되는 정책

- 26**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정책이슈

- 27** 5년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휴게실 라운지

- 28**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

호국보훈의 달

6·25참전유공자들에
영웅의 제복을!



K-피플

34 '영웅의 제복' 디자인 김석원 앤디앤덱 대표

정책현장

38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부산 현장 체험을 가다

김형자의 친절한 과학정책

44 희토류의 특이한 능력

키워드로 보는 2023 트렌드

46 네버랜드 신드롬; 더 젊고 재미있게 사는 어른이들

우리 동네 공간이야기

48 서울 중구 중림참고

숨은 국대 찾기

52 희귀·난치질환 아이들을 꼬마작가로
'만들레마음' 손유린 대표

문화현장

55 왕년의 스타 총출동 '어르신 한마음 축제'

사진작가의 주말여행

56 김좌진·한용운의 고향, 천년 역사 흥성

웹툰 흥성윤 기자의 좌충우돌 쌍둥이 육아

60 쌍둥이의 사회생활

몸건강 마음건강

61 하루 10분씩, 자연 그림을 그렸을 때

함께 즐기다

62 공연 돈키호테 외

64 독자 공감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시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타자기·독서대·조깅화... 우리 대통령들은 어떤 물건들을 가장 아꼈을까?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 전 청와대는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청와대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순간뿐 아니라 일상적 순간을 보내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의 다양한 순간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최한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기념해 대통령의 삶과 기록을 담은 소품과 자료들을 공개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선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 대통령 12명의 소품들을 비롯해 그 일화를 엿볼 수 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전시가 시작된 6월 1일 오후부터 4

일까지 2만 3880명이 관람했다. 주말인 6월 3일과 4일에만 1만 7145명이 관람했다. 청와대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20~30분가량 줄을 서야 전시관에 입장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기자가 청와대를 방문한 6월 3일에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많은 사람이 길게 줄을 섰다. 방문객들은 대통령들이 실제로 사용한 물건들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에 흥미를 보였다.

전시는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과 인왕실 두 곳에서 볼 수 있다. 전시는 세종실에서 시작된다. 세종실은 과거 국무회의장으로 쓰인 곳이다.

세종실에 들어서면 역대 12명의 대통령을 그린 초상화가





관람객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에서 열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관람객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봤던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를 실제로 보면서 신기해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소품도 볼 수 있다.

전시는 대통령들의 재임순서대로 관람할 수 있다. 소품들은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볼 수 있어 대통령들에 얽힌 일화들을 더 흥미롭게 만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을 상징하는 소품은 영문타자기다. 영문타자기는 이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 타자기를 1953년 7월 6·25전쟁 정전 무렵 한미 양국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문서를 쓸 때도 사용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항

공기 부활호의 모형과 1904년 대한제국에서 발행된 이 대통령의 여권도 볼 수 있다.

윤보선 대통령을 상징하는 소품은 구 본관에 올렸던 청기와다. 청와대란 이름은 윤 대통령의 작품이다. 제1공화국 당시 '경무대'로 불리다 푸른 기와집이라는 뜻인 청와대로 바꿨다. 청와대라는 이름에는 비취빛 청기와에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닌 집이라는 뜻이 담겼다. 또한 그가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든버러대학에 다닐 때 받은 재학기념패와 여행용 가방을 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시관에는 반려견 방울이를 그린 스케치 작품이 있다.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군인이 되기 전



이승만 대통령의 영문타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쓴 영문타자기. 이 타자기로 1953년 7월 6·25전쟁 정전 무렵 한미 양국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윤보선 대통령과 청와대 구 본관 청기와 윤보선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이름을 지은 장본인이다. 청와대라는 이름에는 비취빛 청기와에 우리 고유의 전통을 지닌 집이라는 뜻을 담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반려견 스케치 박정희 대통령은 드로잉 수첩을 갖고 다니며 그림을 통해 국정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휴가지에서도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정도로 그림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었다.



최규하 대통령의 연탄난로 최규하 대통령은 평소 검소하기로 유명했다. 최 대통령은 국무총리였던 1979년부터 대통령 퇴임 후 사가에서도 연탄난로를 사용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이어갔다.



전두환 대통령의 축구공 전두환 대통령은 대구공고 및 육사 재학시절 축구부로 활약했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프로축구·프로야구 리그를 출범시키며 스포츠를 활성화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통소 노태우 대통령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애창곡 '베사메무초'를 멋지게 불렀고 통소 연주도 수준급이었다. 통소는 그가 일곱 살 때 여윈 아버지의 유품으로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대변하는 악기이기도 했다.

까지 교사로 일한 박 대통령은 드로잉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경부고속도로 계획안도 박 대통령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울이는 박 대통령 가족과 청와대에서도 함께 살았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한 날, 방울이는 본관 침실 문이 열리자 꼬리를 흔들고 달려갔다가 대통령이 아닌 것을 알고 시무룩해졌다는 일화가 소개돼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현장 시찰에 갖고 다닌 드로잉 수첩과 망원경, 카메라가 함께 전시돼 있다.

최규하 대통령의 전시관에는 그의 검소함을 상징하는 연탄난로가 놓여 있다. 최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지내던 1979

년 강원 장성 탄광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캔 탄을 애정을 가지고 끝까지 때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대통령 퇴임 후 사가에서 지낼 때까지 지켰다. 전시관에선 그가 쿠웨이트 국왕으로부터 선물받은 모형 돛단배와 사저 대문에 걸려 있던 한자 문패를 볼 수 있다.

스포츠·음악 즐긴 역대 대통령들

전두환 대통령의 전시관에는 그의 스포츠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축구공이 있다. 전 대통령은 대구공업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축구 사랑이 지극했다. 1985년 11월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을 기념해 청와대 만찬을 열



김영삼 대통령의 조깅화 조깅은 김영삼 대통령의 상징으로 건강관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는 청와대 녹지원에서 새벽 조깅을 하며 고뇌 속에 주요 정책을 결심하고 복잡한 국정을 정리하곤 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원예가위 김대중 대통령은 신군부에 체포됐을 때 꽃을 가꾸며 감옥 생활을 견뎌냈다. 또한 그는 가위로 꽃을 다듬으며 정치 공간을 새로 설계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서대 노무현 대통령은 개량 독서대를 만들어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다. 특허는 그의 내면에서 작동하는 도전과 돌파의 본능과 연결돼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자전거 헬멧 이명박 대통령의 삶 속에는 자전거가 있다. 이 대통령은 재임시절에도 자전거를 즐겨탔다. 2012년 4월 인천 아라뱃길 4대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 개통행사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를 탔다.



박근혜 대통령의 저서 <나의 어머니 육영수>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추억하며 쓴 책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쓴 '저도의 추억'이란 시를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등산스틱 문재인 대통령은 자타공인 등산 마니아이다. 재임기간 아차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신년맞이 등산을 했고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

었을 때 축구공에 직접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서명했다. 전 시관에서선 전 대통령이 사인한 축구공을 볼 수 있다. 또한 전 대통령이 1982년 야간통행금지 조치 해제와 관련해 치안대비 비용 지출에 직접 사인한 문서와 현장을 둘러볼 때 쓴 봉황 장식의 방한모도 있다.

노태우 대통령의 소품은 직접 사용한 통소다. 그는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 통소 연주를 수준급으로 했다고 알려져 있다. 통소는 노 대통령 부친의 유품이라 아버지가 그리울 때면 통소를 불며 그리움을 달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 대통령이 1990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받은 증절모도 있다. 노 대통

령 때 건립한 청와대 신 본관 건설지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우리 고유의 팔작지붕에 한식 청기와를 올린 청와대 본관 건립과정도 담겨 있다.

전시는 인왕실로 이어진다. 인왕실은 국민 만찬이나 공동 기자회견 등 중요한 행사가 열린 곳이다. 이곳에는 전혁림 화백의 통영항(한려수도) 작품이 걸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마음의 위로를 얻은 작품으로도 알려져 있다.

인왕실에서는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일화를 만날 수 있다. 김 대통령 전시관에는 그가 새벽 조깅할 때마다 신은 조깅화를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청와대 녹지

전시 찾은 대통령의 아들들

김현철·노재현 씨 깜짝 도슨트로 활약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위)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아래)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6월 3일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를 찾아 관람객들에게 전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6월 3일에는 특별한 도슨트(전문 안내원)가 전시에 참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지낸 경험과 각자 아버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관람객에게 대통령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의 새벽 조깅에 대해 설명하면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청와대 경내에서 조깅할 때 두 사람의 승부근성이 발휘돼 마지막에는 마치 100m 달리기처럼 뒀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노 이사장은 관람객에게 통소에 얽힌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아버지가 일곱 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음악을 좋아하시던 할아버지가 통소를 유품으로 남겨주셨다"며 "아버지는 통소와 음악으로 서러움을 씻어내셨는데 이런 음악적 감성이 '보통사람의 시대'를 선언하는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원에서 새벽 조깅을 하면서 매일 30분 동안 자신과 대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을 발표할 때도 새벽 조깅을 했다. 김 대통령은 발표를 앞두고 평소보다 두 배 더 빠른 속도로 달리며 긴장감을 해소했다고 한다. 또한 김 대통령이 철거한 옛 총독부 건물의 대리석과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방한 당시 선물한 대도무문(大道無門)이라는 글자가 액자에 걸려 있다. 대도무문은 '큰 길에는 문이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 친필 편지와 특허 발명품 눈길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독서와 꽃가꾸기를 좋아했다. 청와대에서 생활할 당시에 자주 꽃과 나무를 돌봤다. 김 대통령의 전시관에는 그가 사용했던 원예가위가 놓여 있다. 또한 1980년 5월 신군부에 체포된 후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쓴 옥중편지도 함께 전시돼 있다. 김 대통령이 쓴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관람객이 많았다. 이밖에도 김 대통령이 1998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에게 선물받은 삼성 휴대전화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썼던 붉은색 모자도 함께 볼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다. 그 당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로부터 받은 노벨평화상 메달과 기념주화도 함께 전시돼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관에는 1974년 사법시험 준비 시절 만든 개량 독서대가 있다. 개량 독서대는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게 각도 조절 기능이 있다. 이 독서대가 실용실안 특허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 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특허를 보유한 대통령이 됐다. 전시관에서선 2003년 4월 11일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린 문무대왕함 진수식에서 진수선을 자르는 데 썼던 기념 도끼와 2004년 12월 자이툰 부대 방문 당시 장병들에게 선물한 기념 시계 등을 볼 수 있다.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발표한 연설문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 전시관에는 자전거 헬멧이 놓여 있다. 그는 평소에도 자전거를 즐겨 탔다. 기업인 시절에도 늘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갔다. 대통령 때도 관저에서 본관까지 자전거로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4월 12일 인천 아라뱃길 4대강 국토 종주 개통 행사에도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자전거길을 달렸다. 전시관에는 자전거 헬멧 외에 테니스 라켓도 볼 수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이 2011년 1월 아덴만

의 영웅 석해균 선장에게 수여한 국민훈장 동백장과 석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에게 준 국민포장도 전시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관에는 그가 쓴 책인 <나의 어머니 육영수>가 놓여 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첫 여름 휴가로 경남 거제에 있는 저도에 갔다. 그곳에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와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했다. 전시관에선 박 대통령이 2013년 3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해 쓰던 누비 공예 지갑과 2014년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완공식 기념 식수에서 썼던 삼 등을 볼 수 있다.

등산을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관에는 등산스틱이 놓여 있다. 문 대통령은 히말라야에 4번이나 다녀올 정도로 등산 마니아다. 대통령 재임 중에도 아차산에서 시민들과 신년맞이 등산을 했고 북한을 방문했을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백두산에 함께 올랐다. 전시된 등산스틱은 2020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기념해 만든 것이다. 전시관에는 2018년 5월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받은 앤디 워홀의 작품 ‘시베리아 호랑이’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발행한 기념 은행권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친근하게 느껴져요!

전시관에는 단체 관람객을 비롯해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았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온 어린이들도 전시품을 보고 눈빛을 반짝였다. 경북 경산에서 온 김수진(40) 씨는 아들 로이(5) 군과 함께 전시관을 찾았다. 김 씨는 “가족과 함께 청와대 관람을 왔다가 전시까지 보게 됐다”며 “대통령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재미있었다”고 전했다.

강원 원주에서 온 윤태웅(10)·윤채빈(8) 남매도 엄마 이은주 씨의 설명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태웅 군은 “대통령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전시를 보니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청와대 본관 건립 당시 설치된 작품들도 볼 수 있다. 2층으로 이어지는 중앙 계단에 걸려 있는 김식 작가의 ‘금수강산도’, 충무실 전실에 있는 서예가 이수덕의 10폭 병풍인 ‘아에일일신지대한민국’을 볼 수 있다. 12명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8월 28일까지 열린다. **K**

장가현 기자



(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를 관람하러 온 관람객들이 청와대 본관 앞에 줄을 섰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아래) 관람객 이은주 씨가 자녀 윤태웅·채빈과 함께 김영삼 대통령의 조강화를 보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청와대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인터뷰

“국민에게 흥미롭고 친근한 대통령들을 찾아주고 싶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전시에 대해 기획 의도를 설명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6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초대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직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12명의 삶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소품과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 반응이 뜨거워 평일에도 관람객이 줄을 잇고 있다. 대통령 리더십을 연구해온 필자의 관점에서 이번 전시는 확실히 획기적이다. 문체부는 어떤 의도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을까?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만나 이번 전시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전시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테마에 초점을
맞춘 이유가 있나요?**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라는 전시 제목에 키워드가 녹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12명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주고, 청와대의 본래 모습을 보다 친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이고 인색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청와대 하면 권력암투가 벌어지는 구궁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고뇌하고 결단을 내리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했습니다. 좌절과 낙담 속에서도 정부수립과 한미동맹, 산업화, 민주화라는 성취와 승리의 길을 걸어왔지요. 이제 우리는 부정적 역사관에서 벗어나 긍정의 역사관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공과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에 초점을 맞춰, 재미있고 쉽고 친근하게 우리 대통령들을 만난다는 콘셉트로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언론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관람객도 연일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역대 대통령의 삶과 청와대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새삼 놀랐습니다. 평일에도 관람객이 줄을 잇고, 피크타임에는 청와대 본관 앞에 줄이 200m가량 늘어서기도 합니다. 기존 대통령 전시가 정치적 공과를 다루 무겁고 부담스러웠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조강화나 타자기, 축구공, 독서대 같은 친근한 소품들이어서 맘 편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도 대통령들의 세계가 이렇게 흥미로운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더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현 씨 같은 분들이 전시장을 깜짝 방문해 관람객에게 직접 설명해줘서 전시회 의미가 더해진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과 스토리텔링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소품들을 절묘하게 잘 선택한 전시입니다. 소품들은 누가 어떻게 선택했나요?

무엇보다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리더십 드라마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상징적인 소품을 선택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겁고 가르치려는 콘셉트가 아니라 친근하게 다가가는 콘셉트로 하고, 정치적 상징성을 역동적이고 은유적으로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소품의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가족과 유족, 각 대통령의 기록관-기념재단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자문을 구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무대였던 청와대를 우리 국민의 품으로 완벽하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소신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청와대 개방이야말로 권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시발점입니다.”

각 대통령의 코너마다 간결하고 감성적인 문체로 쓰인 안내문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박 장관이 직접 썼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우리 문체부 직원과 학예연구사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만든 공동 작품입니다. 언론계에 재직할 때 리더십과 역사,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과 노하우를 제공했지요. 우리는 대통령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대통령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 게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은근하면서도 긴박감을 주는 언어를 선택해서 관람객들 스스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청와대에 모인 12명의 대통령이 살아서 숨 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청와대 개방은 획기적인 일이었지만 앞으로 산적한 과제도 많습니다. 개방 이후 1년 동안 문체부는 어떤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랜 세월 권력의 무대였던 청와대를 우리 국민의 품으로 완벽하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이 대통령님의 확고한 소신이자 대국민 약속입니다. 청와대 개방이야말로 권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시발점입니다.

문체부는 국민 품으로 돌아간 청와대가 문화예술 복합공간이자 K-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한 장애예술인 특별전에 이어 12월에는 문학 특별전을 열었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청와대를 K-관광 랜드마크로 선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청와대답게, 살아 숨쉬게, 국민 속 더 깊게’라는 슬로건 아래 청와대의 역사·문화예술·자연수목·전통문화재라는 네 가지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채로운 전시·공연·탐구·체험이 포함된 10대 연중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와대를 본래 모습대로 생생하게 복원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개방은 단순히 권부의 개방 차원을 넘어 권위주의 정치, 제왕적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의 산물입니다. 이제 청와대는 친근감을 주는 문화적 공간으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와 이후 청와대에서 펼쳐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와대가 국민의 공간으로서 완전히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들도 따뜻한 시선과 긍정적인 역사관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역대 대통령들을 새롭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식, 〈금수강산도〉

‘금수강산도’ 얼마나 크기에... 옛 진명여고 강당 빌려 그려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 6월 1일부터 청와대 본관과 춘추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다. 그런데 잠깐, 전시품에 몰두해 고개 숙이고 다니다가는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다. 벽에 걸린 사연 많은 미술품들을 지나칠 수 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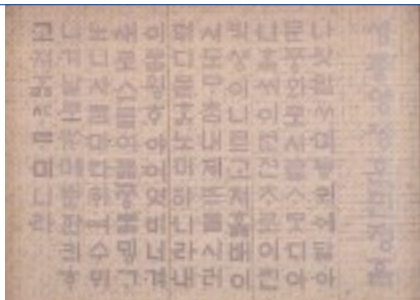
청와대가 소장해온 미술품은 모두 606점이다. 한국화, 서예, 서양화, 판화, 사진, 조각품, 도자기, 공예품, 설치작품 등 분야가 폭넓다. 소장품 전체 목록이 공개된 적은 없다. 유명 작품만 어느 정도 알려졌을 뿐이다. 작품 상세 정보도 마찬가지다. 특정 작가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2022년 5월 청와대를 공개할 때 걸려 있던 작품 대부분도 내렸다. 대형 불박이 작품들만 남아 관람객은 빈 벽을 보고 다녀야 했다. 썰렁하던 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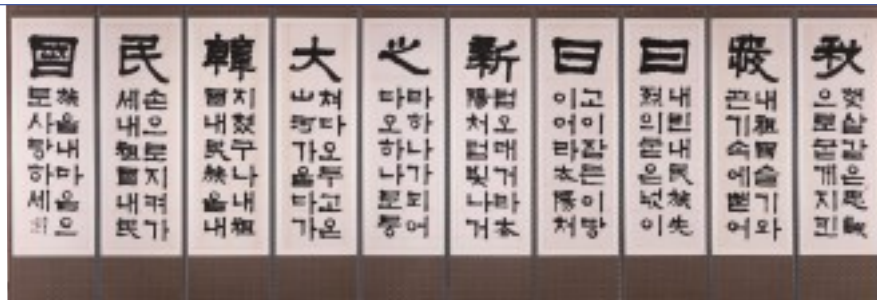
다시 온기가 돌고 있다. 본래 있던 작품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덕이다. 관람 동선인 세종실~무궁화실~중앙계단~2층 접견실~인왕실~충무실을 따라가며 볼 수 있는 주요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 12인을 작가 7명이 그렸다. 국무회의가 열리던 세종실 입구에 있다. 이번에 대통령 이름과 재임기간을 적은 안내판을 붙였다. 그간 초상화만 걸려 있어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이 꽤 있었다. 이제 아이들이나 외국인들도 초상화 주인공을 알 수 있게 됐다.

일월도 민화 거장 송규태가 그렸다. 해, 달, 산봉우리 다섯, 소나무, 물이 소재다. 조선시대 어좌 뒤에 걸린 그림으로 왕의 권위를 상징한다. 세종실 대통령



백금남, 〈훈민정음〉



이수덕, 〈아에일일신지대한민국〉

좌석이 있던 북쪽 벽면에 있다. 노태우 정부 때 걸었는데 김영삼정부 때 제왕적 통치를 상징한다며 떼어냈다. 김대중정부 후반에는 박영웅의 소나무 그림 ‘일자곡선’을 걸었다. 이명박정부 때 회의장 배치를 바꾸며 ‘일월도’ 앞에 커튼을 쳤다. 문재인정부에서 커튼을 걷고 다시 공개했다.

훈민정음 백금남이 제작한 벽화다. 세종실에서 일월도와 마주 보고 있다. 수많은 한자 위에 월인천강지곡체의 큼지막한 은색 한글을 엮었다.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없던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훈민정음 창제 배경을 형상화 했다.

금수강산도 본관 중앙계단 벽면에 걸려 있는 가로 1146cm짜리 벽화다. ‘일월도’, ‘훈민정음’과 함께 1991년부터 본관 붙박이다. 워낙 큰 그림이라 제작에 대형 작업실이 필요했다. 김식 작가가 경복궁 옆에 있는 옛 진명여고 강당을 빌려 그렸다. 김정호가 1861년 만든 ‘대동여지도’를 참고했다. 동해 한가운데 떠 있는 울릉도와 독도가 뚜렷하다. 금속 부분은 은을 섞어 그렸는데 세월이 흐르며 산화작용으로 검게 변했다. 올해 이를 복원해 본래 금빛을 찾았다.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금수강산도’ 위쪽 천장에 있는 한상봉의 벽화다. 세로 552cm, 가로 1489cm이니 청와대에서 가장 크다. ‘예로부터 제왕은 하늘의 명을 받아 백성을 다스리고 왕조는 하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천명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시대에 무슨 왕조 시대 발상이냐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도 하늘 아래 있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이 작품의 원조는 조선 태조 때인 1395년에 만든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로 고궁박물관 상설전시관에서 실물을 볼 수 있다. 춘추관 천장에도 한도룡이 도안한 같은 이름의 작품이 있다.

공심여일월(公心如日月) 중앙계단을 왼쪽으로 올라가면 복도 벽면에 붙어 있다. 서예가이자 전작가인 이기우 작품이다. ‘공평한 마음은 해와 달과 같다’는 뜻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국정운영을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게 옷칠한 나무판에 자개로 글자를 붙여 만들었다.

통영항 인왕실에 걸려 있는 전혁림의 2006년 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TV에서 우연히 그림을 보고 전시회를 찾

아가 따로 제작을 부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 바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대통령이었다.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돼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이 그림이 없자 찾아보라고 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을 거쳐 국립현대미술관에 가 있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온 사연이다.

아에일일신지대한민국(我愛日新之大韓民國) 가로 567cm짜리 대형 병풍이다. ‘나는 날로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글을 쓴 서예가 이수덕은 6·25전쟁 때 여군 소총수로 입대해 전쟁 뒤 대위로 전역했다. 예서체로 힘차게 놀려준 큼지막한 글씨에 작가의 예사롭지 않은 삶이 들어 있다. 양화대교·한남대교·마포대교 명판도 그의 글씨다.

1991년 본관을 지을 때 당시 자문위원단(위원장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다섯 가지 인테리어 원칙을 세웠다. ▲한국적 이미지 강조 ▲전통과 현대 조화 ▲역사성과 문화성 강조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고취 ▲정중함이다. 본관에는 이러한 기준이 알게 모르게 스며 있다.☒

안종기 중앙일보 기자·〈처음 만나는 청와대〉 저자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전시된 K-808 차륜형 장갑차 등 장비를 관람하며 장병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뉴스

역대 최대 규모 '화력격멸훈련' 주관 “국군이 지키는 평화”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개최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올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최되는 국가급 훈련으로,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나라의 F-35A, K9 자주포, 미국의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 대와

71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해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1부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 천무 등을 통한 대 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한 후 공격헬기, 포병, 직

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일반 전초)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 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통합 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

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다.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끝났다.

윤 대통령은 훈련이 끝난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참관한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을 격려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훈련은 북한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해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훈련장소는 미군이 처음 조성하고 우리 군이 발전시킨 곳으로, 한미동맹 70주년 역사를 상징하는 장소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훈련을 한마디로 ‘국군이 지키는 평화’라고 압축해서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교육도 경제·산업 수요 맞춰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5일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교육개혁에 대해 이 같은 지시 사항을 내렸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 과제인 대학 개혁과 관련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

업을 혁신하고 교육과 연구도 변해야 한다”며 “융합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국고보조금 운용 원점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민간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국고보조금 운용과 관련해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내년도 보조금 예산에 대해 제로베이스 검토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꼭 필요한 것만 편성하라”며 “국민 세금인 보조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 보조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빙(자료)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 부정 비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6월 4일 대통령실은 29개 부처가 올해 1~4월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 감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4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우선 5000억원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정부 책무”라며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UAE와 원전·방산 등 협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

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UAE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한·UAE 간 경제 관계가 최근 긴밀해지고 특히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결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UAE와 원전과 국방, 방위 산업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압둘라 장관은 “수교 이래 최초로 이뤄진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

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다”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답했다. 압둘라 장관은 “UAE에 한국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며 “약속한 대로 투자협력 이행을 위한 작업을 착실히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수소를 포함한 그린에너지 투자와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압둘라 장관은 또 셰이크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 클럽 맨체스터시티(맨시티)가 최근 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첨단·관광 활력”

윤석열 대통령은 6월 9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2022년 6월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

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적인 출범을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김진태 강원도 지사와 강원도민 등 1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 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도민은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 강원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이 실현되도록 첨단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e-모빌리티, 수소 등 첨단산업에 대한 도전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뒷받침해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을 촘촘히 이을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 직후 춘천 공지천교 인근에서 익수자를 구한 송우근 소방교, 흥기 난동범을 맨손으로 제압해 시민을 구한 변정우·전중현 의인, 강원도 최초로 700회 이상 헌혈한 이순만 씨, 봄슬레이 국가대표 소재환 선수, 소설가 꿈을 키우는 장유나 학생 등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했다. [K]

강정미 기자

파리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부산의 차별화 비전 보여주는 기회”

윤석열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6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BIE 총회에서는 오는 11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4차 프레젠테이션(PT)이 펼쳐진다. 윤 대통령은 6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껏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에 도전하는 도시는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 4곳이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6월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겸 오찬을 진행한다. 프랑스 방문 기간에 동포 간담회, 한·프랑스 미래혁신 세대 대담, 디지털 비전 토론회,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윤 대통령은 6월 22~24일 국민 방문 형태로 베트남을 찾는다. 6월 23일 보 반 트영 국가주석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의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일정

6월 20~21일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전개

6월 20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G7국가, EU정상과의 회담 일대락
양국 협력 확대 방안 논의

6월 23일

한·베트남 정상회담
취임 후 첫 아세안 국가 양자 방문
‘2030년 교역 1500억 달러 목표’ 협력 지평 확대

자료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3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서울대·부산대 등 8개 대학에 4년간 540억 원 지원

특성화대학 8곳 선정... 반도체 '초격차' 확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8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6월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도권 3개 대학 및 비수도권 5개 대학은 글로벌 시장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반도체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구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앞으로 연간 400명 이상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배출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의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에 대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23년 새롭게 마련됐다. 산업계에 학사급 인력을 즉각 공급하는 동시에 석·박사급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반도체 특성화대학은 학계를 비롯한 산업계와 연구계가 힘을 합쳐 전문가의 서면검토, 현장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된 8개 대학은 '단독형(5개교)'과 2~3개 대학이 연합해 참여하는 '동반성장형'으로 구분된다. 선정된 대학은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양성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4년(2+2)간 8개 대학에 사업관리비를 포함한 약 5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단독형으로는 서울대와 성균관대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는 회로·시스템과 소자·공정에 특화된 반도체 트랙을 신설해 인재를 양성한다. 성균관대는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특화된 트랙과 융합전공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도권 지역 동반성장형 대학으로 선정된 명지대-호서대 연합은 소재·부품·장비와 패키징에 특화된 반도체공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독형 대학에 각각 45억 원, 동반성장형 대학에는 70억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단독형으로 경북대(회로·시스템, 소자·공정, 소재·부품·장비), 고려대 세종캠퍼스(첨단반도

체 공정장비), 부산대(차량반도체)가 선정됐다. 동반성장형에는 전북대-전남대(차세대 모빌리티반도체), 충북대-충남대-한국기술교육대(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가 선정돼 함께한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수도권보다 두텁게 해 단독형 대학에 각 70억 원, 동반성장형 대학에 각 85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6월 22일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참여할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를 운영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들이 산업·연구계와 함께 인력수요와 산업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돕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다양한 규제혁신 노력이 이번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학에서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022년 6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교육부

내가 낸 기부금 어떻게 쓰였을까 투명하게 공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서
누구나 확인 가능**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www.nanumkorea.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6월 16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기부금품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혹은 행안부에 모집등록을 하고 사용 후에는 사용명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모집액과 사용액 등

을 단순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모집 날짜와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자세히 기록하도록 서식을 바꾼다. 이에 기부자와 국민은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버스도 사전예약 원하는 시간에 출발

‘광역 콜버스’ 8월 도입

원하는 출발시간과 장소를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버스인 ‘수요응답형 광역교통서비스(이하 광역 콜버스)’가 도입된다. 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4일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시흥시·파주시·광주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역 콜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 좌석을 예약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호출을 받은 곳만 서기 때문에 경유하는 정류장 수도 적다. 오는 8월부터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요금결제까지 가능하다. 차량은 8월부터 경기도 내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수원·용인·화성·시흥·파주·광주)에 지역당 세 대씩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버스 요금은 기존 광역버스 요금과 같은 2800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비스 범위를 지역 내에서 광역권으로 확대해 지역 간 이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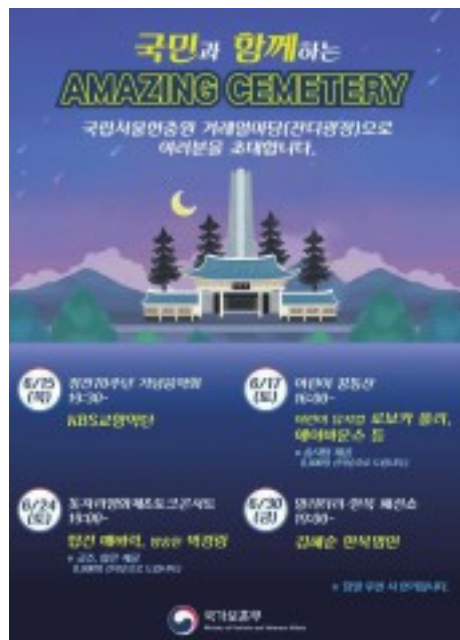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14일 서울 마포구 DMCE타워에서 열린 ‘광역 콜버스 시범사업 협약식’이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간과 환승 횟수를 단축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서울~경기도 간 출퇴근자들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손잡고 연구개발 사업 형태로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직도 사당역, 범계역 등에서 출퇴근길에 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하며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면서 “광역 콜버스는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시민들의 광역 교통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충원에서 뮤지컬·영화 본다

6월 한 달간 국립문화특집행사 개최



자료: 국립보훈박물관

국립서울현충원(이하 현충원)이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국가보훈부는 6월 14일 ‘국민과 함께하는 어메이징 세머터리(Amazing Cemetery)’ 문화특집행사를 6월 ‘호국보훈의 달’ 한 달간 현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간 국방부가 관리하던 현충원의 운영권이 70년 만에 지난 6월 5일 보훈부로 이관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보훈부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현충원을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찾는 공간으로 가꿀 계획이다. 현충원은 국가상징의 공간이지만 평소 참배객들만 방문하고 행사도 엄숙함을 강조하는 기념식 위주로 거행돼왔다.

6월 15일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 음악회로 시작한 이번 문화특집행사는 다채로운 공연으로 국민을 맞는다. 17일에는 어린이뮤지컬 ‘로보카폴리’ 공연이 펼쳐지며 에어바운스 등 놀거리도 마련된다. 24일 이어지는 ‘돛자리영화제&토크콘서트’에서는 ‘탑건: 매버릭’을 다함께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30일에는 김혜순 한복명인의 ‘밀리터리-한복 패션쇼’가 대미를 장식한다. 모든 공연은 현충원 거례알마당(잔디광장)에서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자외선차단제 바른 선택법은?

SPF지수·PA등급 알맞게 고르고
해변에선 ‘내수성 제품’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자외선차단 효과에 대해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인증 제품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누리집 내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 그 이상은 50+로 표기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다. PA등급은 PA+, PA++ 식으로 표기하는데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크다. 그러나 SPF수치와 PA등급이 높으면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노출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됐을 때는 수시로 덧발라줘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내수성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분사형 제품은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사용해야 안전하다. 귀가 후에는 제품이 피부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낙동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따라 달리고 있다. 사진 조선DB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 더 길어진다

천안·완주·곡성 등
신규노선 추가

행정안전부가 2023년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으로 신규노선 140km를 발굴했다. 이중 92km는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나머지 48km는 2024년까지 도로 조성을 마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2237km가 된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사업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새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기존 노선과의 연결성, 지역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개통 시기 등을 고려해 신규 노선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노선은 ▲대전·충남 천안 ▲전북 완주 ▲전남 곡성·영암(2) ▲경남 밀양·창원 등이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노선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 누리집(www.bik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망 신진작가 미술장터 전국 10곳에서 열린다

‘2023 작가미술장터’가 서울과 세종·속초·순천·완주·제주 등 6개 지역 10곳에서 열린다. ‘작가미술장터’는 젊은 작가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15년부터 지원해온 사업으로, 미술품 수집가들에게는 재능 있는 신진작가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64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올해 행사는 서울 마포구 탈영역우정국에서 열리는

‘드로잉그로잉(6월 14~18일)’ 장터로 막을 연다. 드로잉(소묘)과 에스키스(밑그림) 중심의 작품이 전시된다. 6월 15~20일까지 세종 조치원문화정원에서는 ‘원 픽 마켓’이 관람객을 찾아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50인이 연대한 ‘쉽과 힐링’을 주제로 한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9월까지 3개월간 열리는 작가미술장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인스타그램(@vamark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상세계 건설해볼까

‘메타버스 온라인 아카데미’
초등학생 대상 7월부터 운영

국립어린이과학관이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메타버스 온라인 아카데미: 메타버스 게임개발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유튜브 영상(10편)과 실시간 수업(4회) 등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 로블록스 스튜디오는 사용자가 자신만의 가상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메타

버스 게임 개발 플랫폼이다.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에 실제로 직접 만든 가상세계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은 7~8월 중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경진대회는 9월 8~10일까지다. 신청은 국립어린이과학관 누리집(www.csc.go.kr)을 통해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초등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K

조윤 기자

전력 수급상황실 9월까지 운영

“올여름 전력수급 안정적 유지”



6월 15일 경기 의왕시 전력거래소 경인지사 전력관제센터 전광판에 전력수급 현황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기상청은 5월 발표한 ‘3개월 전망’ 예보를 통해 6~8월 평균 기온이 평년과 같거나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2023년 여름은 무더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전력수요는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의 공급능력이 늘어나 2023년 여름에는 전력수요가 가장 높을 때에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 1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전력 최대 공급능력은 2022년 99.7GW(기가와트)보다 6.7GW 늘어나 역대 최고인 106.4GW로 올라갔다. 신한울1호기가 2022년 말부터 가동에 들어갔고 2022년 정비 등을 이유로 가동을 멈췄던 다른 원전도 가동돼 원전에서만 2022년보다 공급능력이 2.8GW 늘어난 덕분이다.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을 8월 둘째 주 평일 오후 5시경으로 예측했는데 이 시점의 전력수요는 기준 전망 시 92.7G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날씨가 예상보다 더 더워져 전력수요가 커진 가운데 태양광 발전 효율이 떨어져 전력수급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 상향 전망은 97.8GW로 예상했다. 이는 2022년 여름 전력 최대 수요인 93.0GW보다 높은 수치로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지만 정부는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때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 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6월 1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2022년보다 앞뒤로 1주일씩 늘어난 6월 26일부터 9월 15일로 확대하고 수급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여러 발전기가 고장나는 등 비상상황이 벌어져도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기업 가동 시간을 조정하는 수요감축이나 석탄발전 상향운전 등을 통해 7.6G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해줬다.

에너지 절약 실천도 유도한다. 에너지캐시백을 적극 추진해 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에는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사용량 관리도 강화한다. 최대 전력 사용 시간대가 변화한 것을 고려해 집중 절전 시간을 오후 2~5시에서 오후 4시 30분~5시 30분으로 변경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전기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수급관리에 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올 여름철 지원이 확대된 에너지캐시백 가입, ‘1kWh 줄이기’ 캠페인 동참으로 낭방비 폭탄 없는 현명한 에너지소비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K**

김효정 기자

“살려줘” 외치면 119 출동한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0만 가구 추가

심근경색 시술을 받은 울산의 70대 A어르신은 집에 있는 동안 코피가 멈추지 않았다. 자칫 위급한 상황으로 변질 수 있는 가운데 A어르신은 응급 버튼을 눌러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전북 완주군의 80대 B어르신은 외출한 사이 집에 불이 났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터라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다행히도 화재감지기가 자동으로 119안전센터에 신고를 했고 긴급출동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A·B 어르신 모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도움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다. 이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장비를 집안에 설치해 응급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자동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화재

감지기가 불이 난 걸 알아채고 119에 신고하는 것은 물론 활동량을 감지해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안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저장된 비상연락처로 전화 연결도 가능하다.

음성인식 신고, 인공지능 케어콜 등 추가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차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6월 14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서비스는 2022년 말 기준 총 20여 만 가구에 제공되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켰다. 이번 3차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10만 가구가 추가로 서비스를 받게 됐다. 특히 3차 사업은 “살려줘”를 외치면 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기능과 활동이 감지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인공지능(AI) 케어콜 서비스 등 발전된 기술이 추가됐다.

2022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조치된 응급상황 및 신고는 총 16만 3268건. 응급 버튼을 통한 신속 신고 1만 7950건, 화재 자동 신고 6265건, 활동이 감지되지 않아 응급관리요원이 안부를 확인한 경우가 13만 9053건이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계시는 노인·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빈틈없는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선수현 기자



자료 보건복지부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급하게 돈을 보내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아차, 잘못 보낸 돈 돌려받게 도와줍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예요. 앞서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자진반환' 혹은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에 의뢰해 착오수취인의 정보를 입수한 뒤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려 줘요. 이때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면 반환 진행 과정에 소요된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곧장 돌려줘요. 그런데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땐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법원이 착오송금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면 착오수취인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받아 송금인에게 전달해줘요. 만약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절차가 진행돼요. 통상 착오송금 반환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두 달 내외가 걸려요. 이렇게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 있으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금액 상한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어요. 최소 반환지원 금액은 5만 원부터예요.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돈을 보낸 뒤 1년 안에 해야 해요. 예금

보험공사 본사 1층에 자리한 상담센터(서울 중구 청계천로 30)에 직접 찾아가거나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kmrs.kdic.or.kr)을 이용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때 등엔 반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실수 혹은 악의로 제도를 이용해선 안돼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송금할 땐 항상 조심해야 해요. 수취인 이름과 보낼 금액, 계좌번호는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어요. 더불어 누군가 잘못 보낸 돈을 송금받았을 땐 자진반환하는 게 건강한 시민의식라는 점은 다들 아시겠죠? **K**

조윤 기자

서울 시내 한 은행 예·적금 창구에서 고객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뉴스스



5년 5000만 원! 청년도약계좌 출시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6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 및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5년간 최대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6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개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5년 만기를 유지한다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

청년도약계좌 개요

매월 70만 원씩 5년 납입 시 약 5000만 원 수령

연령 기준
만 19~34세(병역 이행기간은 제외)
소득 기준
개인: 600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납입 한도
월 70만 원
의무 가입 기간
5년

자료 금융위원회

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가구소득은 가입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이 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적금담보대출

을 운영하고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한다. 특별중도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 등) 시에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하면 된다. SC제일은행은 2024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달 가입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3일까지다.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정미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일 문화교류 중심인 미래세대, 활발한 교류 이뤄지길”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은 6월 15일 ‘한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일본 나가오카 게이코 문부과학성 대신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정상 서툼외교의 문화분야 성과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장관은 회의에서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이 양국 국민 간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박 장관은 2025년 일본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일본의 응원과 지지를 요청했다. 양국 장관은 2023년 9월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제1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직접 만나 문화교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박 장관은 “양국 문화교류 중심에는 미래세대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세대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주 통신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수립, 기술협력 규모 확대”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6월 7일 열린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이스라엘 정부 및 기업과 업무협약(MOU) 등 계약 9건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체결된 계약은 바이오·로봇·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투자유향 1건, 1760만 달러(약 224억 4900만 원)의 계약 2건과 업무협약 6건이다. 앞서 산업부와 이스라엘 혁신청은 2001년부터 세계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누적 7700만 달러(약 981억 9000만 원)의 산업기술연구개발 기금을 조성해 기술협력을 추진해왔다. 현재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로봇, 지능형 이동수단 등을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으로 선정해 중점 연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해 기초원천 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 기술협력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소정 통신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고거래 플랫폼 신뢰 높은 시장 되길”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6월 12일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과 함께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 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참여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이다. 이번 협약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국내외 리콜 해당 제품 등 위해제품 정보를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은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했다. 분쟁해결기준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하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자율 협약을 계기로 중고물품 온라인 유통시장이 더욱 신뢰 높은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희 통신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산업 위해 소비자 협조와 관심 필요”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6월 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소비자단체 회장단과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 등 12개 소비자단체장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와 농식품분야의 소비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현안을 공유했다. 정 장관은 물가 불안 요인으로 인한 식품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소비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소비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물가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 정 장관은 “우리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협조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해나가야 우리 농식품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명승 통신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의견 청취해 개혁안 마련”

사진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30대 청년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소통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연금에 관심 있는 20~30대 청년 프리랜서들에게 국민연금제도와 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배우, 강사, PD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국민연금제도 및 개혁 추진 배경 등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지체되면서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다며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해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청년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연금에 관한 질문에 답변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개혁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환 통신원

이인실 특허청장

“미 특허상표청, 유럽 특허청 긴밀히 협력할 것”

사진 특허청



이인실 청장은 6월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선진 5개 특허청장(IP5)회의에서 캐시 비달 미국 특허상표청장, 안토니오 캠피노스 유럽 특허청장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지식재산 분야의 현안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청장과 비달 특허상표청장은 ▲양 기관의 출원 및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정보 ▲지식재산분야의 여성 진출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청장은 캠피노스 특허청장과는 지식재산정책 등에 대한 최신 동향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인공지능분야 발명 관련 특허명세서 공동연구 등 진행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청장은 “미국 특허상표청과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럽 특허청과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우리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재진 통신원

참전유공자들에 영웅의 제복을!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다”

윤 대통령,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12만 1879명. 6·25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나도록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의 수다. 이들 ‘영웅’을 잊지 않고 기억해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제복 입은 영웅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6월 1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복의 영웅들’을 충분히 살피고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뎠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정신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영웅을 예우하는 것은 헌법정신의 실천

다음 날인 6월 14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참석자 한 명 한 명을 맞이해 자리를 함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이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4일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이하영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이사에게 제복을 입혀주고 있다. 사진 뉴시스

열렸다. 이날 오찬에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회원 170여 명과 특별초청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별초청 대상에는 서해수호 유족과 장병 대표가 포함됐다.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희완 해군 대령을 비롯해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 서후원 중사의 부친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 고 윤영하 소령의 동생 윤영민 씨가 청와대를 찾았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최원일 전 함장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씨, 연평도 포격전의 최주호 예비역 병장,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유족대표 등도 자리했다.

역대 정부초청 오찬에 처음 참석하는 영웅과 가족들도 있었다.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최귀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 씨와 손녀 최현정 씨, 1999년 제1연평해전 주역 안지영 해군 대령과 허욱 해군 대령이다.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으로 화재를 진압하다가 3월 6일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의 부친 성용묵 씨도 함께 초청받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특별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4일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에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김창석, 이하영(왼쪽부터)
이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뉴스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다”고 말하며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모두발언에 이어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유공자 3인에게 ‘영웅의 제복’을 입혀주고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줬다. 윤 대통령이 배지를 달아준 것은 국가보훈부가 6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121879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의 일환이다. 배지는 2022

년 말 기준으로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1879명의 6·25전쟁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모두 고유한 번호를 갖고 있다. 6월 13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 전원이 태극기 배지를 가슴에 달고 참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 앞에 선 참전유공자는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 김창석 유공자회 이사, 이하영 유공자회 이사다. 손 회장과 김 이사는 1953년 6월과 7월에 걸쳐 강원도 화천군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전투 ‘금성전투’에 참전했다. 이 이사는 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잘 알려진 1950년 8월 ‘다부동전투’에 참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제복을 친수하며 “이 제복에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다짐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제복의 영웅들’을 예우해왔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는 윤석열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꼽힌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이에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9일에는 천안함 피격사건,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목함지뢰사건 등의 생존 장병과 유가족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유가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따뜻하게 모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가의 이름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보훈을 강조해왔다. 2022년 6월 17일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명패’를 수여

했다. 국가유공자 명패는 2019년 만 들어졌지만 대통령이 직접 수여한 적은 없었다.

2023년 3월 24일에는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목숨을 바쳐 서해를 지킨 55명 영웅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安危를 돌보지 않고 온몸을 던진 용감한 군인이었다”며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6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나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1981년 6월 조성된 묘역에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정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에 참배한 것은 이 같은 발언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보훈을 중시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3월 2일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는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영웅들이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6월 14일 열린 오찬 행사에서는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효정 기자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

조끼 대신 제복을! 5만 1000여 참전 유공자에 새 제복 지급

국가보훈부가 2022년 6월 시작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참전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해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허름한 조끼를 입고 다니는 참전유공자들에게 새로운 제복을 맞춰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맨 처음 손희원 6·25참전유공자회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제복을 맞춰주는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곧바로 많은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참전유공자를 예우하는 이런 사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복의 영웅들’은 2023년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제복을 지급하는 정책과제로 확대 추진됐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2022년 7월 당시 국가보훈처가 실시한 ‘6·25전쟁 참전유공자 지원정책 인식 설문조사’에서는 새 제복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70%를 넘었다. 제복을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62%를 넘어 대다수를 이뤘다.

이에 국가보훈부도 2023년이 정전 70주년인 점을 감안해 5만 1000여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모두 제복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4월부터 유공자와 유가족의 신청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4일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처음 전달한 것이다.

개별 참전유공자들은 6월부터 제복을 보급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부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복을 전달할 때는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이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제복을 입은 집배원들이 제복을 입었던 참전유공자들에게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담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모든 제복 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 분위기가 정착되는 보훈문화를 만들겠다는 것이 보훈부의 설명이다.



2022년 6월 공개된
당시 국가보훈처의
프로젝트
‘제복의 영웅들’
사진 국가보훈부

6·25참전유공자 ‘새 제복’ 디자인 김석원 앤디앤덱 대표

“제복의 디자인은 용사들이 입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2022년 6월 20일, 국가보훈부가 호국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새로운 여름 단체복을 공개했다. 이제껏 규격화된 제복 없이 여름이면 일명 ‘안전조끼’로 불리는 상의를 입어온 영웅들을 위해 새로운 제복을 만드는 과정과 이를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을 담은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는 공개 이후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전면 확대해 생존하는 6·25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생존 6·25참전용사는 5만 1000여 명이다.

연갈색 재킷과 흰색 셔츠, 남색 바지와 넥타이. 5만 1000여 명의 6·25참전유공자가 입게 될 새 제복은 단순하지만 격식 있고, 각 잡힌 듯하면서도 편안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이 제복을 구상하고 제작한 김석원(53) 앤디앤덱 대표는 “6·25참전유공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입기 편한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6·25참전유공자의 의견을 듣고 소재부터 단추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지금도 생산 과정을 꼼꼼히 감독하며 완벽한 제복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달부터 새 제복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김 대표를 만나 제복이 완성되기까지 과정과 이번 작업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국가보훈부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해온 걸로 알고 있다. 2021년에는 6·25참전유공자의 외모와 패션을 변신시켜주는 ‘다시 영웅’이라는 재단장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2022년에는 6·25참전유공자들이 여름에 입는 약복, 조끼가 그들의 격에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여름 단체복을 만드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국가보훈부로부터 새 제복의 디자인을 요청받았고, 디자이너로서 영웅들을 위한 옷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 될 것 같아 참여하기로 했다.

기존 약복을 봤을 때 느낌은?

6·25참전유공자들이 공사 현장이나 작업할 때 입는 작업복 조끼를 입고 있는 것도 놀라웠고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태극기와 약장(略章·약식의 훈장, 휘장, 기장)을 달고 있는 모습도 놀라웠다.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에 놀라고 안타까웠다.

디자이너로서 큰 부담을 느꼈을 것 같다.

6·25참전유공자를 상징하는 제복의 이미지라는 게 사실상 없었다. 내가 디자인한 옷으로 6·25참전유공자를 표현하고 정체성을 만들어드린다는 게 부담스러우면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책임감도 느꼈고.



6·25전쟁 정전70주년을 맞아
이달부터 생존 6,25참전유공자
5만1000여 명에게 지급될 새 제복을
디자인한 김석원 앤디앤amp;엠 대표.
사진 C영상미디어



6·25참전유공자회 장근식 부회장의 새 제복 착용 전(왼쪽)과 착용 후 모습. 사진 국가보훈부

새 제복은 어때야 한다고 생각했나?

우선 일반 국민이 6·25참전유공자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상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참전유공자지만 현역 군인은 아니기에 자칫 군인의 정복과 비슷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처럼 보이는 복장도 아니어야 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전통 복식사에서 전쟁에서 군인들이 입었고 또 거기에서 발전한 옷인 사파리 재킷을 떠올렸다. 하복이기 때문에 소재는 시원하고 통풍성이 좋은 리넨(linen·마)이 적합했다. 사파리 재킷을 리넨 소재로 제작해 정복 같은 느낌을 주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미를 나타내기로 했다. 여기에 훈장, 기장 등을 달아도 축축 늘어지지 않도록 옷의 기능적인 요소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완성된 새 제복은 어떤 모습인가?

새 제복은 연갈색 재킷과 흰색 셔츠, 남색 바지와 넥타이로 구성됐다. 사파리 재킷 형태의 재킷은 가볍고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멋을 살릴 수 있게 했다. 훈장과 기장 등을 달 수 있도록 아웃포켓을 달았다. 셔츠는 얇은 여름용이지만 6·25

참전용사들이 기장과 훈장을 주머니 부분에 착용했을 때 그 무게로 셔츠가 처지는 등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썼다. 넥타이에는 상징성 있는 자수를 더해 기장이나 훈장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참전용사임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디자인에 특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옷의 디테일보다 옷의 의미를 생각했다. 이 제복의 디자인은 입는 분들이 제복을 입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명예로운 훈장, 기장 등을 달았을 때 완성된다. 나는 그분들이 그런 걸 하실 수 있게 밑작업만 한 거다. 6·25참전유공자를 만나보면 각자 제복을 꾸미는 방식이 다르다. 개성이 드러난다. 내 디자인은 6·25참전용사들이 각자 개성있게, 자신의 기호에 맞게 옷을 입을 때 비로소 빛이 난다. 그렇게 디자인했다.

제작기간은 얼마나 걸렸나?

6개월 정도 걸렸다. 나 혼자만의 디자인이 아니라 6·25참전용사의 상징성, 국가보훈부의 의견을 종합하다 보니 많은 협의가 필요했고 시간이 꽤 걸렸다.

2022년 공개된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사업이 확대돼 생존 6·25참전유공자 전원이 새 제복을 입게 됐다.

원래 프로젝트는 10명의 참전유공자가 시범 착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였다. 그런데 국민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 나라의 세금을 이런 데 써야 한다는 댓글도 많고, 참전용사들이 이런 처우를 받고 있다는 걸 안타까워 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 같은 호응이 국가보훈부가 사업을 확대해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 제복을 지급할 수 있게 만들었다. 덕분에 할 일이 많아졌다. 대량 생산을 위해 소재와 컬러, 디자인을 보완해야 했고 샘플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예우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크다. 지금이나마 국가에서 헤드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6·25참전유공자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고 들었다.

소재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리넨은 시원하지만 구김이 많이 생긴다. 드라이클리닝 대신 물빨래가 가능한 소재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재킷 소재를 바꿨다. 그러면서 컬러도 리넨 고유의 베이지색에서 밝고 선명한 연갈색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단추를 금장으로 바꿔 화려함을 더했다. 보다 정체성 강한 옷이 완성됐다.

새 제복 제작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디자이너로서 소재부터 단추 하나하나 생산 과정에 필요한 감리를 하고 있다.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처리하기도 하고, 새 제복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다.

새 제복을 입은 6·25참전유공자를 만나면 기분이 남다를 것 같다.

얼마 전 한 패션화보 촬영장에서 새로 만든 제복을 입은 6·25참전유공자를 만났다. 그분들을 보고 있자니 굉장히 뭉클했다. 내가 디자인한 옷을 입고 거기에 명예로운 훈장을 달고 사진 촬영하는 걸 보면서 내가 이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의 의미를 알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만난 한 분은 올해 94세로 일반 사병으로는 이례적으로 훈장을 3개나 받으셨다. ‘살아있는 전설’이라 할 만한 분이였다. 목소리도 찌렁찌렁하고 기품이 느껴졌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제복을 5년만 더 빨리 만들어주지 그랬냐고 하시더라. 그 사이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다. 조금만 서둘렀다면 더 많은 참전유공자가 옷을 입었을 거라며 아쉬워하는데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러웠다.

1월 1일 이후 생을 달리한 참전유공자들도 유가족이 신청하면 제복을 받을 수 있다.

유가족들이 새 제복을 영정에 올리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 수의(壽衣)로 입고 싶다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단순히 참전유공자만을 위한 디자인 작업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숙연해진다. 이 제복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작업이 디자이너 인생에서도 큰 의미로 남을 것 같다.

지금까지 재능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해왔지만 프로젝트 시작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가까이 작업했고 의미도 큰 만큼 특별한 경험이었다. 이번처럼 국민이 좋아하는 작업도 없었던 것 같다. 나로서는 영광이다. 그렇다고 해서 디자이너로서 주목받고 싶진 않다. 제복을 만든 내가 아니라 6·25참전유공자들이 더 주목받고, 새 제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 제복이 어떤 옷이 되길 바라나?

제복이 우리 국민과 참전유공자들을 이어주는 브리지(Bridge·다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의미를 알려주고 국민이 자연스레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이 옷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K**

강정미 기자



김석원 대표는 새 제복은 6.25참전유공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입고 편한 옷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옷의 디테일보다 옷의 의미를 생각했다. 이 제복의 디자인은 입는 분들이 제복을 입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명예로운 훈장, 기장 등을 달았을 때 완성된다.”

김석원 대표 약력

- 1996 미국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패션디자인과 졸업
- 1999 앤디앤덱 론칭
- 2000~2005 SAD(삼성디자인교육원) 패션디자인과 초빙 크리틱
- 2004 제8회 서울패션인상 올해의 신인 디자이너상 수상
- 2008~2010 뉴욕패션위크 참가
- 2009 제2회 코리아패션대상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2009~2012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심사위원
- 2010 서울패션위크 10주년 '10인의 헌정 디자이너'
- 2016 제9회 코리아패션대상 대통령상 수상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부산 현장 체험을 가다

시료 채취부터 방사능 분석 과정까지 “내 눈으로 직접 보니 우리 수산물 안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걱정이 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소통단(30명)은 오는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수산물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활동한다. 소통단은 전문성·적합성 평가를 거쳐 영양사·주부·소비자단체 활동가·교사 등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많은 계층과 직장인·대학생 등으로 구성됐다. 나이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소통단은 인천(4월 25일)에 이어 5월 22일 부산에서 두 번째 현장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소

통단이 처음 찾은 곳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강도다리 양식장이었다. 냉대성 어종인 강도다리는 최근 양식이 늘고 있는 어종으로 광어(넙치)를 대체하고 있다. 광어보다 성장이 느리지만 질병에 강하다. 식감은 광어와 비교해 쫄깃하다. 강도다리는 이름에 ‘도다리’가 들어가지만 가자미과다. ‘좌광우도’라고 해 꼬리를 기준으로 눈이 좌측에 몰려 있으면 광어·강도다리, 우측에 있으면 도다리다.

양식장 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이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부산지원 관계자들은 강도다리 양식장을 찾아 방사능 검사에 필요한 강도다리를 채집했다. 방사능 검사를 위해선 가식부(살로 먹을 수 있는 부분) 1kg이 필요하다. 뼈와 껍질, 내장 등을 제외해야 해 강도다리 3kg가량을 수집했다.

양식장 수조 세 곳에서 강도다리를 5마리씩 잡아 봉투에 담고는 수조별로 번호를 적었다. 수집한 강도다리는 먹을 수 있는 부위만 잘게 갈아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로 활용한다.

수품원 부산지원 검사소에서는 수품원 소속 연구사들이 쾅쾅 언 날개다랑어에 칼을 대고는 고무망치로 힘껏 내리치고 있었다. 플라스틱 도마가 망치 소리와 함께 위아래로 들쭉거렸다. 냉동 상태인 생선을 방사능 검사용 시료로 만들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었다.

수산물을 방사능 측정용 시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관계자가 강도다리 양식장에서 시료로 쓸 수산물을 수집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수품원 부산지원 연구사들이
방사능 분석에 필요한
시료를 확보하기 위해
강도다리를 전처리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선 ‘균질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내장까지 먹는 생선은 살과 내장까지 곱게 분쇄한다. 미꾸라지 처럼 통째로 먹는 생선은 뼈까지 갈아야 한다. 믹서기를 통과해 균질화된 시료는 용기에 담는다. 그 무게는 1kg쯤 된다.

시료는 요오드와 세슘을 검출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 장비(감마핵종분석기)로 들어간다. 장비는 방사선 누출을 막기 위해 납으로 만들어져 무게만 1톤이다. 감마핵종분석기는 1만 초(2시간 47분) 간 시료를 분석하는데 결과는 그래프로 나타난다. 문제가 되는 방사선은 그래프에 노란 선으로 표시된다. 자연 방사능 K40은 빨간 선으로 나타나는 데 이 선이 없으면 분석이 잘못됐다는 의미다.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는 통상 이틀이 걸린다.

방사능 검사에 엄격한 기준 적용

검사 결과 수산물에서 세슘이 kg당 1Bq(베크렐) 이상 검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수산물

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한다.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 기준은 세슘과 요오드의 경우 kg당 100Bq 이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그 기준이 각각 1200Bq, 1250Bq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방사능 검사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 소통단원은 “양식장에서 자란 수산물까지 방사능 검사를 할 줄은 몰랐다”며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품원 부산지원 김은진 연구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계속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수산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우리 해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안전하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했다.

소통단은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감시)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이하 조사연구원)도 찾았다. 조사연구원은 조사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도 2013년 9월부터 수입을 차단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안전한가?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건마다 정밀검사를 진행한다. 극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 검사를 한다.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어떻게 관리하나?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으로 21개 품목에 대해 수입부터 유통·소매까지 거래이력을 신고·관리한다. 유통·판매 단계에서는 원산지 의무 표시제를 시행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기(20개 품목 2023년 7월 시행)를 집중 단속한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떻게 되나?

시뮬레이션 결과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하면 4~5년이 지나야 우리 해역에 도달한다. 방출된 오염수는 10년 후 0.001Bq/m³ 내외로 우리 해역에 영향을 준다. 이는 국내 해역 삼중수소 평균 농도(172Bq/m³)의 10만분의 1 수준 미만이다.

국내산 수산물도 검사하나?

국내산도 3종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해역 92곳의 검사를 한다. 여기에 수산물 생산 단계에선 해수부가, 유통 단계에선 식약처가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그래도 방사능 오염이 걱정된다면?

우리나라 방사능 안전 기준은 세슘과 요오드의 경우 100Bq/kg 이하다. 국제 기준(세슘 기준·미국 1200Bq/kg, EU 1250Bq/kg) 대비 10배 이상 엄격하다. 해수부는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려 품목은 직접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제도는 무엇인가?

국민 누구나 검사 시료를 준비해 검정을 신청하고 시료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 보내면 수품원이 시료에 대한 검사를 마친 뒤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리는 제도다. 검사 비용(5만 원)도 무료다. 5월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소비자가 원하는 방사능검사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수품원이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4월 24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결과 211건을 신청받았다. 이 중 중복 신청 등을 제외하고 검사 신청이 많은 품목 40개를 선정해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40개 품목 모두 세슘과 요오드가 검출되지 않아 '적합'으로 판정됐다.

자료 해양수산부

3척(100톤 2척, 400톤 1척)으로 연 6회에 걸쳐 52개 지점(전국 연안 45개, 주요 항만 7개)에 대한 해수 시료를 수집한다.

방사능분석 실험실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도체 공장에서 착용하는 방진복과 방진뱃신을 입고 신어야만 한다. 시료에 먼지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각종 수치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수 시료를 수집한 후 각종 분석을 거쳐 결과를 얻기까지는 2주에서 3개월이 걸린다.

조사연구원 관계자는 핵종 하나를 분석하는 데 해수 60리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을 계측하기 위해선 농축과 증류, 불순물 제거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세 화학 성분을 검출하는 장비이기에 가격도 비싸다.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연구원도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기준치 초과 방사능 검출된 적 없어

조사연구원 관계자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이 우리 해역에서 검출된 적 없다"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했다.

조사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5월부터 '해양방사능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실시하는 해역 모니터링에 따르면 우리 근해의 방사능 농도 범위는 '0.00054~0.00363Bq/kg(2015~2021년)'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0.00119~0.00404Bq/kg) 시기보다 낮다. 모니터링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해양환경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품원과 조사연구원 방문을 마친 소통단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 소통간담회도 가졌다. 조 장관은 "오염수 방류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바람에 정확한 사실과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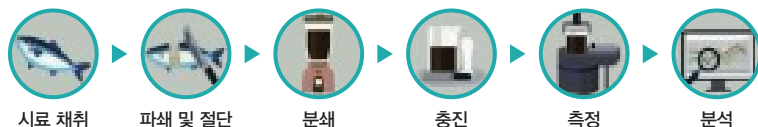
(왼쪽) 수품원 부산지원 김은진 연구사가 분석 용기에 채운 균질화한 시료를 감마핵종분석기에 넣고 있다.



(오른쪽)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한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 해수 핵종 분석이 한창인 방사능분석 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수산물 방사능검사

검사 절차



시료 채취

파쇄 및 절단

분쇄

충진

측정

분석

검사 기준

요오드, 세슘: 각 100Bq/kg

국내외 식품 내 방사능 기준

(2023. 01. 20 기준)

한국 100Bq/kg | 미국 1200Bq/kg | EU 1250Bq/kg

※ 한국, 국제 기준 대비 **10배 이상** 엄격한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때문에 소통단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 현장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해가 있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며 "소통단의 활동이 우리 국민과 수산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에서 온 한 소통단원은 "소통단 현장 체험을 통해 해수부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수산물에 믿음을 갖게 됐다"며 "새벽에도 수산물 시장에서 검사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된다. 해수부도 소통과 홍보를 잘해달라. 주변에 적극 알리겠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은 절대 국민 식탁에 올리지 않는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구에서 온 소통단원 최준수 씨(24·경북대 식품공학과)는 "수산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이들의 노고를 알게 됐다"며 "수산물 안전 체계가 굉장히 튼튼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이 배경지식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며 "우리 해역에 어떤 해류가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수산물이 수입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통단 "수산물 안전 홍보하겠다"

경기 이천에서 온 조아람 씨(30·어린이 급식 영양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수산물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와도 소통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국민이 수산물 안전을 더 쉽게 체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주 씨(24·부산대 해양학과)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수산물 안전에도 관심이 많아 소통단에 참여했다. 박 씨는 "궁금한 점을 장관님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며 "소통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은?

공개모집 통해 30명 선발 20~60대 주부·학생·영양사 등 활동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 1기 30명)은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남성 16명, 여성 14명으로 구성된 소통단은 국민을 대표해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수산물 안전정책 업무를 참관하며 경험을 공유한다. 총 81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2.7대 1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소통단 선발을 위해 관련 분야 교수와 홍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열고 전문성·적합성 평가를 거쳤다. 교사(2명)·영양사(3명)·주부·소비자단체 활동가부터 직장인(7명)·대학생(4명) 등 직업과 지역, 연령대도 다양하다. 지역은 서울 10명, 경기 6명, 부산 4명, 제주 2명, 경북 2명, 광주·전남 2명, 강원·울산·인천·충북 각 1명이다. 나이는 20대 9명, 30대 6명, 40대 9명, 50대 이상 6명이다.

소통단은 누리소통망(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정부와 일반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시기별로 수산물 위해요인 정보를 비롯해 수산물 안전 정보를 알린다. 원산지 단속, 수산물 검역, 양식장 안전관리 현장에도 참여한다. 여기에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정책 질의와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소통단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수부 관계자와 간담회에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국민을 대표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위한 환경에 힘을 보태고 있다. 소통단의 첫 번째 활동은 4월 25일 수산물 최대 소비처인 수도권(인천)에서 가졌다. 대형 수산물처리 시설, 방사능검사 시설 등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현장 점검이었다. 학교 등 단체급식 시설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와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필요한 시료 채취와 시료 검사를 참관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원들이 소통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단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수치들이 막연했는데 이제는 이해도가 좀 더 높아졌다. 덕분에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김정희 씨(64·주부)는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 김 씨는 “오늘 현장 활동은 과학적인 부분을 많이 다뤄 복잡하고 어려웠다”면서도 “수산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좋았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의심이 많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는 “양식장에서 출하하기 전에도 간간하게 감사하는 것을 보고는 안심할 수 있었다”며 “주변에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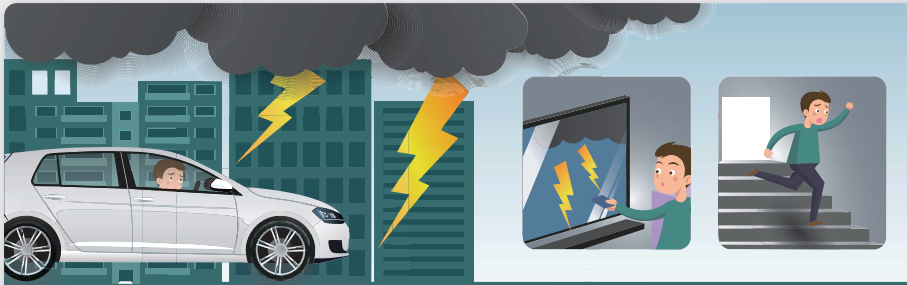
6월 12일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산업계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한 소통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인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은 수산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업무별로 7개 팀을 구성해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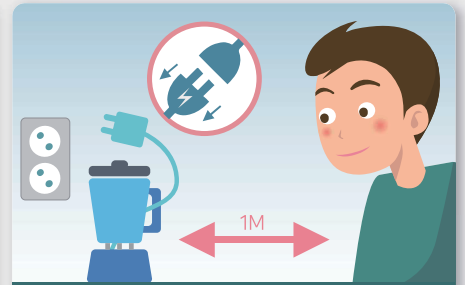
6월 13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경남, 강원, 전남 등지에서 6월 29일까지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인·유통 관계자와 만난다.

해수부는 해역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2022년 목표치보다 2배 이상 확대해 전 품종을 대상으로 8000건을 시행할 계획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3만 건 이상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면서 단 한 번도 부적합 수산물은 발생하지 않았다. K

이경훈 기자



낙뢰 예보시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있을 땐 **자동차 안, 건물안,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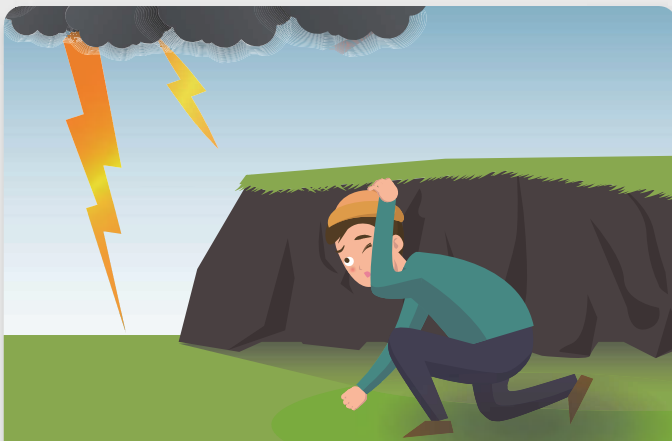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합니다.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합니다.



평지에서는 몸을 낮게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골프, 낚시 등 야외활동 중일 때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30-30 안전규칙을 지킵니다.

번개가 친 이후 **30초** 이내에 천둥이 울리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마지막 천둥소리가 난 후 **30분**정도 더 기다린 뒤에 움직입니다.

최근 스웨덴 북부 키루나 지역에서 희토류 100만 톤 이상이 매장된 광산이 발견됐다. 이는 유럽 내 희토류 최대 매장량이자 유럽연합(EU)의 희토류 수요를 상당 부분 충족할 만한 양이다. 에바 부슈 토르 스웨덴 에너지산업부 장관은 키루나 광산에 대해 “스웨덴이 금광이 됐다”며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EU가 자원 독립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스웨덴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스톡홀름에서 울프 크리스터손 총리와 회담을 가졌을 때 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방안을 찾자고 한 것도 스웨덴의 매장량 때문이다. 대체 희토류는 어떤 광물이고 어디에 어떤 원리로 쓰이기에 전 세계가 앞다퉈 확보하려는 것일까?

희토류의 능력은 독특한 전자 덕분

희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흙’을 뜻한다. 원소 주기율표의 원자번호 57번에서 71번까지인 란타넘(La), 세륨(Ce), 프라세오디뮴(Pr), 네오디뮴(Nd), 프로메튬(Pm), 사마륨(Sm), 유로퓸(Eu), 가돌리늄(Gd), 테르븀(Tb), 디스프로슘(Dy), 홀뮴(Ho), 에르븀(Er), 툴륨(Tm), 이테르븀(Yb), 루테튬(Lu) 등 란타넘족 원소 15개에 스칸듐(Sc), 이트륨(Y)을 포함한 17개 원소가 희토류다.

희토류는 그 수가 적긴 하지만 이름처럼 매장량이 극히 드문 물질은 아니다. 한곳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지 않고 넓은 지역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채굴하기가 어렵고, 화학적으로 분리해 정제하고 가공하는 과정이 약 20단계로 까다로워 희토류라는 이름이 붙었다.

희토류 금속에서는 대부분 17개 원소가 동시에 발견된다. 철광석이나 각종 탄산염과 인산염 속에서 희토류가 발견되면 17개가 조금씩 다 들어 있다. 17개 원소를 각각 분리하려면 강력한 용매를 사용해 여러 번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고, 라듐 같은 위험한 방사능 물질도 감수해야 한다. 이 정제·가공 과정에서 동반되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 또한 심각하다. 추출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다. 이 때문에 일찌감치 희토류 발굴을 포기하는 국가들도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19년 희토류의 전 세계 매장량은 1억 20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 중 4400만 톤(36.7%)이 중국에 있다. 브라질과 베트남도 각각 22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1200만 톤, 인도는 690만 톤, 호주는 340만 톤, 미국은 140만 톤을 보유 중이다. 매장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70~90%를 담당할 만큼 주요 생산국이기도 하다.

세계 기업들이 희토류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른 원소와 달리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희토류 원소는 독특한 전자를 가지고 있다. 전자들이 궤도를 돌면서 어떠한 자극이 가해지면 에너지를 내뿜는 것이다. 희토류의 이런 특이한 성질과 전자가 만드는 에너지를 활용해 다양한 원자재로 사용한

다. 전자제품은 물론 광학유리, 금속 첨가제, 촉매제, 신재생에너지 등에 쓰인다. 희토류를 ‘첨단산업의 비타민’, ‘4차 산업의 쌀’로 부르는 이유다.

희토류 원소들의 화학적 성질 또한 매우 안정적이다. 보통 다른 원소들은 양성자 숫자가 하나만 달라져도 성질이 완전히 바뀐다. 하지만 란타넘족 희토류 원소는 특이하게도 다른 물질에 녹거나 결정 속에 들어가도 자신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다. 건조한 공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열전도성 또한 높고 자성적·발광적 성질도 탁월하다. 디스플레이용 산화물에서 원래의 선명함을 그대로 유지하며 빛을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희토류는 금속 형태로서 반응성도 커서 합금을 만들기에 유리하다.

첨단기술 핵심 소재 희토류

희토류의 쓰임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자석이다. 일반적으로 자력은 전자가 원자핵의 주위를 회전해 발생한다. 희토류 전자들은 궤도를 회전하는 성질이 있고 이때 전자의 자극이 동일한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석에 흡착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영구자석을 만들 수 있다. 전 세계 희토류의 소비량은 연간 17만 톤 정도인데 이 중 30%가 영구자석을 만드는 데 쓰인다. 영구자석은 자석 물질에 강한 자기장을 더해 강한 자석의 성질을 오래 보존한다.

한 손 안에 착 들어오는 스마트폰 역시 강한 ‘희토류 자석’ 덕분에 탄생했다. 희토류의 하나인 ‘네오디뮴’은 초강력 자석이다. 기존 영구자석에 비해 10배 이상 자성이 강하다. 네오디뮴 자석 3kg으로 300kg 이상의 물체를 들어 올릴 만큼 작은 크기로 충분한 자기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능력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에 쓰여 혁명을 불러왔다. 전기차의 핵심인 모터는 물론 컴퓨터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배터리, 비행기 제트 엔진, 위성통신, 풍력·태양열 발전기 등에도 희토류 자석이 사용된다. 현재 자석 시장의 80%를 희토류가 차지하고 있다.

희토류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중요한 원자재다. 액정표시장치(LCD), 발광다이오드(LED) 등 디스플레이들은 내부 산화물에 발광 물질 입자를 넣어 빛을 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다. 희토류가 아닌 다른 발광 물질들은 산화물에 들어가면 화학적 변형이 일어나 시간이 지나면 빛의 선명함이 퇴색한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매장량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공급망이 막히면 우리 산업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첨단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스스로 ‘구슬 꿰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다른 나라 광산에 묻힌 희토류의 원료화나 가공 기술을 개발해 제후를 맺는다면 우리가 먼저 희토류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K**



(위)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희토류 매장지(Bayan Obo), 사진 게티이미지
(아래) 컴퓨터 하드라이버에 사용된 네오디뮴 자석, 사진 미국 에듀넷



김형자

〈Newton〉 편집장
출신으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과학
칼럼니스트,
〈구멍으로 발견한 과학〉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네버랜드 신드롬

젊음은 언젠가 놓아야 하지만 놓을 수 없는 것이다. 누구나 더 어려보이길 원하고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을 원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길 원한다. 또 아이처럼 명랑하고 재밌게 생활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2023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이런 현상을 ‘네버랜드 신드롬’이라고 명명했다. 과거 연령대에 맞는 성숙한 성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했다면 지금은 나이보다 더 젊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우리 사회의 유년화는 단지 일부의 취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활양식이 돼가고 있다”며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생애주기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청춘의 기간이 길어져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주류 문화가 된 네버랜드 신드롬

네버랜드 신드롬은 ‘피터팬 신드롬’과는 다르다. 피터팬 신드롬은 영국작가 제임스 매튜 베리의 소설 <피터팬>의 주인공 피터팬에서 따온 말이다. 피터팬은 나이를 먹지 않는 마법에 걸려 영원히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캐릭터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런 피터팬의 모습에 착안해 몸은 어른이 됐지만 심리적으로 아이의 상태에 머무르려 하는 퇴행적 심리상태를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부른다. 피터팬 신드롬이 홀로 아이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네버랜드 신드롬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 젊은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이를 즐기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피터팬 신드롬이 지닌 부정적 어감 대신 보편적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돌아감’ ▲더 나이 들지 않으려는 ‘머무름’ ▲아이처럼 재미있게 놀고 싶어하는 ‘늙’이다. 돌아감은 키덜트(kidult) 문화에서 주로 볼 수 있다. 키덜트는 아이를 뜻하는 ‘키즈(kid)’와 어른을 뜻하는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어른이 됐음에도 여전히 어렸을 적에 좋아했던 문화와 감성을 간직한 성인들을 말한다. 과거에는 키덜트족에 정신적 퇴행이라는 부정적 뉘앙스가 강했지만 지금은 이런 문화가 주류가 되면서 돌아감을 추구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어났다.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물건이 요술봉이다. 애니메이션 <웨딩피치>에 등장하는 ‘천사의 크리스탈 요술봉’ 풀 박스가 최근 중고거래 시장에서 980만 원에 거래돼 화제가 됐다. <웨딩피치>는 마법소녀가 등장하는 일본만화 <애천사전설 웨딩피치>를 말한다. 천사의 딸인 피치가 사랑의 천사 웨딩피치로 변신해 악마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내용을 다룬 애니메이션으로 1990년대 우리나라 TV에 방영되면서 당시 어린이였던 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머무름은 외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옛날 30대와 요즘 30대 비교’라는 글이 누리꾼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게시물은 1990년대 방송에 출연한 30대 일반인과 최근 방송에 출연한 30대 일반인의 외모를 사진으로 비교한 것이다. 1990년대 30대는 현재 40대 중후반처럼 보인다. 과거보다 생활환경이 좋아진 것도 이유지만 나이가 들어도 스타일, 취미, 취향 등을 어릴 때처럼 유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조직에서도 승진을 거부하고 현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여승현(42) 씨는 최근 회사로부터 승진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승진하는 만큼 책임감이

더 젊고 재미있게 사는 어른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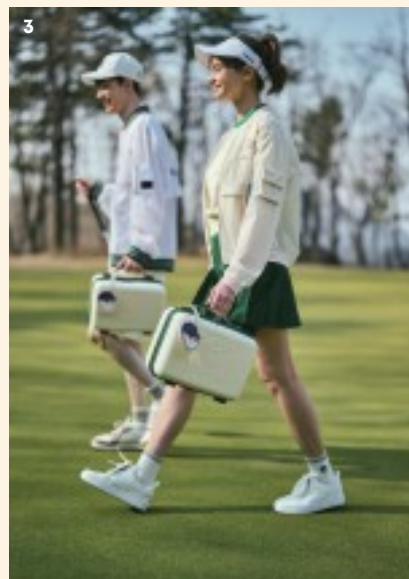
커지고 지금의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 씨는 “승진함으로써 얻는 긍정적 측면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승진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진지함 대신 재미 추구

높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진지하게 접근하기보다 재미있고 가벼운 놀이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명랑골프의 유행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골프에 입문하는 사람이 늘었는데 이들은 물을 엄격하게 따지기보다 편하게 즐기는 골프를 선호한다. 이것을 명랑골프라고 한다. 2023년 6월 기준 누리소통망(SNS) 인스타그램에 명랑골프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수는 56만 건에 달한다. 이들은 골프가 본래 지닌 복잡하고 엄격한 룰을 따르기보다 야외에서 친목을 다지는 것을 더 선호한다.

무지출챌린지도 이런 현상 중 하나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무지출챌린지는 고물가를 극복하기 위해 절약하는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챌린지(Challenge·도전)’로 놀이화한 것이다. 또한 혼자서 챌린지를 하는 것보다 거지방 등 커뮤니티 이용자와 함께하면서 놀이처럼 재미있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번진 데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된 것과 연관이 깊다. 인류의 평균수명이 늘면서 청년이라 부를 수 있는 연령대도 과거보다 훨씬 길어졌다. 또한 생애 과정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에 어른이라고 불렀던 기준이 사라진 것이다. 과거에는 직장에 들어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른의 조건처럼 여겨졌지만 요즘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다시 배움의 단계로 돌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과거에 규정한 사회적 나이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서점가에는 40대를 새롭게 규정하는



1 1990년대 국내에서 방영된 애니메이션 <웨딩피치>에 등장한 요술봉이 980만 원에 거래됐다. 사진 TV도쿄
2 배우 한소희가 생일파티에서 착용한 다이소 어린이용 액세서리인 '공주세트'가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사진 한소희 인스타그램
3 MZ세대를 중심으로 명랑골프가 유행하면서 캐주얼한 골프웨어가 출시되고 있다. 사진 동아제약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사회적 나이의 의미가 희미해지고 나이로 인한 고정관념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반면 부정적 측면도 있다. 사회 전체가 미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중심적인 주장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주류가 될 수 있고 문제 발생의 원인을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나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네버랜드 신드롬은 현실을 살아갈 위안이 돼 준다. 다만 과거의 추억과 재미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건강하게 자아를 탐색하는 어른이 된다면 영원히 네버랜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K**

조이현 객원기자

서울 중구 중림창고

어물전 창고가 동네 거실로 살이 썩이고 이야기가 썩이고

‘중림창고’에 도착하자마자 웃음이 났다. 처음 가는 곳이라 길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했는데 도착해보니 ‘중림창고’ 바로 아래 단골 카페가 있는 것 아닌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번 와본 골목이었다. 서울 중구 충정로에 위치한 중림창고 주변은 광화문과 서울역, 신촌을 오가며 잘 아는 동네였지만 해매고 싶지 않아 지도를 보며 찾아온 터였다.

오면서도 전혀 몰랐다. 대로변을 따라 준비한 고층빌딩과는 상반된 복고풍의 아기자기한 골목에 감탄하기 바빴기 때문이다. 길을 따라 아파트 담벼락이며 모퉁이 화단, 가게 앞에 놓인 화분까지 골목 안은 지천이 장미라 그제 신기했다. 도착해서야 여러 번 와본 곳임을 알아차리고 어이가 없었다. 목적지에만 함몰돼 있었나 싶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이정표도 확인하곤 했는데 분명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서울 지하철로 중림창고에 가려면 2호선과 5호선이 만

성요셉 문화거리 전경. 중림창고와 성요셉아파트가 휘어진 골목을 따라 나란히 마주하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나는 충정로역이 가장 가깝다. 자주 다니던 단골 카페는 5호선 출구를 이용했다. 그리고 도착지를 중림창고로 설정한 길찾기 앱을 따라온 이번에는 2호선 출구 쪽이었다. 평소 다니던 길의 반대편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익숙한 주변 풍경에 방향 감각이 돌아왔지만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진입 방향에 따라 골목의 풍경이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나중에 알았다. 본디 골목이란 다채로운 모습과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공간임을. 지금도 골목 안의 삶은 현재진행형이다. 수없이 다양한 삶이 교차하고 있다. 도시의 묘미인 동시에 도시를 살 만한 공간으로 완성시키는 요소다. 그런 의미에서 중림창고는 창고로서 본래 역할뿐 아니라 골목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존재였다. 나는 누구보다 그 골목을, 중림창고를 제대로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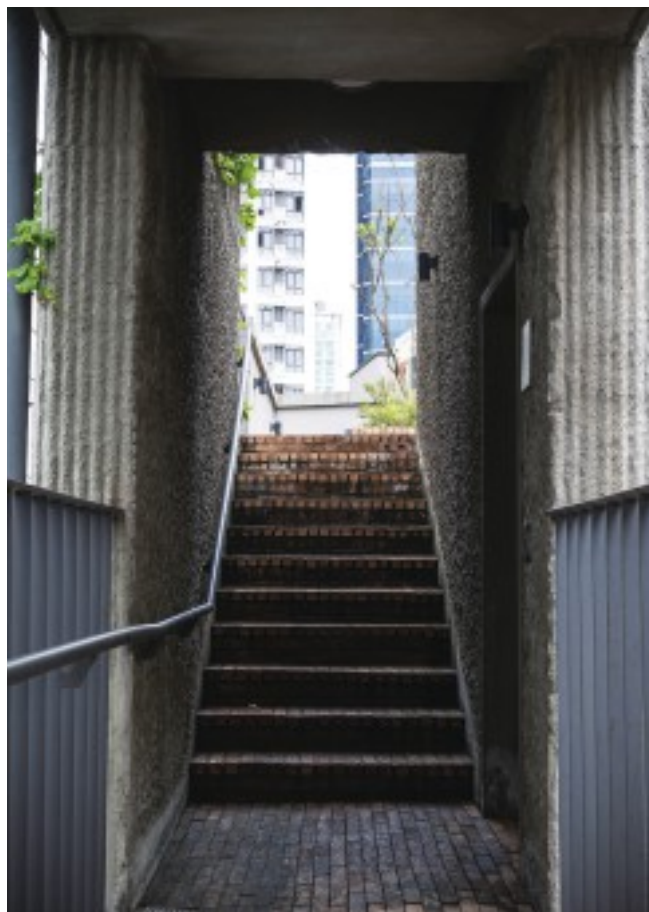
지극히 역사적인 무허가 창고

중림창고는 2019년 11월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267.26㎡) 규모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전시 및 판매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래 50년도 더 된 낡은 무허가 판자창고의 대변신이다.

중림창고의 장소적 기원은 중림시장에서 기인한다. 서소문 밖에 위치하던 중림시장은 조선시대 종가(鍾街:종로)·이현(梨峴)과 함께 서울 3대 시장으로 손꼽히던 칠패시장이었다. 칠패란 포도청 순라군이 감찰하는 여덟 개의 패(牌) 가운데 남대문 밖에서 연지(蓮池)까지 순라를 도는 칠패가 주둔하는 곳에서 유래했다. 특히 어물전(魚物塵)이 가장 규모가 크고 활발해 근대에는 경성수산시장으로 불리며 1980년대까지 번창하던 수산시장이었다. 가락시장과 노량진시장도 모두 이곳에서 파생했다.

시장은 새벽에 열렸는데 점포가 없는 상인들이 장사를 마치고 남은 물건을 인근 언덕배기 자투리땅에 열기설기 건물을 지어 보관하던 곳이 바로 오늘의 중림창고였다. 언제 철거돼도 이상하지 않을 무허가 창고라고 치부하기에는 깨나 뼈대 있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기능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갔고 시장 역시 노량진으로 가락동으로 이전하자 중림시장은 급속도로 쇠락하며 창고 또한 버려지고 말았다.

참 신기한 일이다. 규모는 축소되고 모습은 변했을지언정 시장의 기능만큼은 수백 년 역사를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 중림창고 1층에 있는 골목책방 '여기서울 149쪽'
성요셉아파트는 149번지다.
(아래) 중림창고 계단 너머 충정로 높은 빌딩들이 도시의
다채로움을 더한다. 사진 C영상미디어



골목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중립창고는 공간·시각적 다채로움을 선사하는 공간이다. 사진 C영상미디어

그대로다. 창고가 버려졌어도 헐리지 않았고, 시장이 쇠락했다고 언덕배기 골목길이 없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선시대 칠패시장으로 불리던 중립시장까지 ‘깜짝시장’이란 별칭으로 여전히 2023년의 첫 새벽을 깨우며 열리고 있었다. 변하되 변하지 않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동네 거실 된 어물전 창고

다시 중립창고가 있는 골목으로 가보자. 현재 길의 정식 명칭은 ‘성요셉문화거리’다. 서울로7017, 주변 지역 7개 길(중립1·2길, 서계1·2길, 후암1·2길, 회현길)과 연결돼 걷고 싶은 길로 재단장됐다. 성요셉이란 좁은 언덕길을 사이에 두고 중립창고와 마주하고 있는 성요셉아파트에서 따온 이름이다.

성요셉아파트는 1970년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신축 당시에는 아파트 바로 뒤에 있는

중립동 약현성당 소유로 성직자들이 거주했다. 이후 민간에 매각돼 오늘에 이른다. 빗바랜 분홍색 페인트의 외관이 주변의 최신식 고층빌딩들과 대비돼 마치 컬러로 복원된 흑백사진 같은 느낌을 준다. 골목의 경사진 언덕길을 따라 길게 휘어진 건물의 독특한 형태와 함께 1970년대 주거 환경까지 살펴볼 수 있어 서울시가 미래유산으로 지정해 보호 중이다. 중립동 약현성당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성당으로 현재 사적으로 지정돼 있다. 명동성당보다 2년이나 빠른 준공이다.

골목은 가장 인간적인 길이다. 도로가 빠르게 대량 수송을 하는 자동차의 길이라면 골목은 머물거나 멈춰 있을 수 있는 사람의 길이다. 그래서 골목은 성요셉문화거리처럼 과거의 흔적이 많다. 역사는 물론 과거를 회상하거나 추억을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곳이 골목이다. 모두 인간적

인 것들이다. 설사 모양만 골목이라도 대문이 굳게 닫혀 있거나 자동차가 그곳을 점령하고 있다면 골목이라 할 수 없다. 골목은 어디까지나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삶이 교차되는 곳이어야 한다.

길이 55m, 좁은 폭은 1.5m, 넓은 폭은 6m, 대지고저차 8m의 길가에 위치한 중림창고는 골목을 압축해놓은 공간이었다. 건물 내부의 폭은 좁지만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이 건너다 보일 만큼 깊다. 이런 깊이감은 외부공간과 수직 동선으로 연결됐다 끊어지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되는 공간·시각적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골목의 모양을 따라 휘어진 성요셉아파트와 결을 같이한다. 거기다 땅이 길가에 길게 면해 있기 때문에 거리에 서면 건물의 형상을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 단골 카페를 오가면서도 중림창고의 전체를 의식하지 못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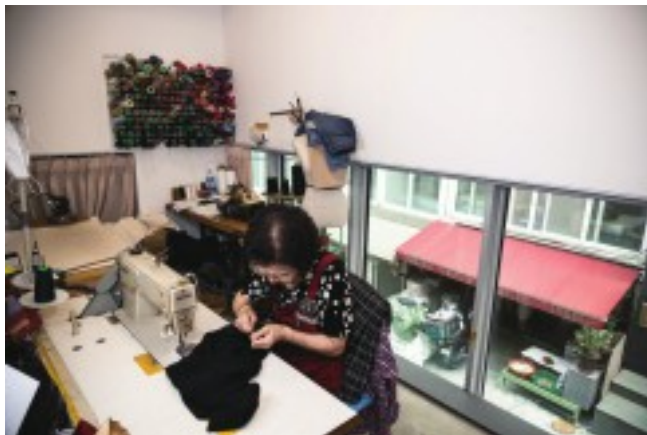
다만 중림창고는 이 같은 특징을 적극 활용했다. 모든 면에서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며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밖에서 다 보일 수 있도록 1층을 전면 개방했다. 건물에 머무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서로를 불러들이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이다. 어물전 창고가 동네 거실이 돼 사람과 사람의 삶을 품고 있다.

도시를 완성하는 골목의 힘

4m 언덕길을 사이에 두고 중림창고와 성요셉아파트가 아내는 독특한 풍경은 요즘 뜨고 있는 여타의 골목과는 매우 다르다. 오랜 세월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들쭉날쭉한 경계, 삐죽빼죽 튀어나온 가게들이 인상적인 아파트 앞길, 그 동선을 물 흐르듯 이어가는 중림창고의 개방성은 골목을 하나의 뮤지컬 무대처럼 만든다.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기대감이 절로 든다.

이처럼 진짜 골목에는 경관의 변화를 다양하게 만드는 장치가 가득하다. 현재 중림창고 1층은 골목책방 ‘여기서올 149쪽’과 함께 2층에는 과거 판자창고 시절부터 있던 수선집과 지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은 안방처럼 편안하게 드나든다. 책방 이름의 149쪽은 성요셉 아파트 번지수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외부공간이 있다. 바로 건물과 도로 사이의 경사지에서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붉은 벽돌을 이용해 물리적으로 만든 단이다. 언뜻 보면 계단이나 벤치, 작은



(위) 판자창고 시절부터 있던 중림창고 2층의 동네 수선집.
(아래) 중림창고는 1층을 전면 개방해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밖에서 다 보이도록 했다. 사진 C영상미디어

뒷마루 같다. 성요셉아파트 주민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언덕을 올라가다 잠시 쉬었다 간다. 때때로 대로변에 있는 높은 빌딩의 직장인들이 잠깐 나와 쉬거나 동네 아이들이 모여 노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늘 사람들이 있는 골목을 만들어주는 장치인 셈이다.

도시가 건강하려면 골목이 있어야 한다. 빌딩과 아파트만 있는 곳은 도시일 수 없고, 골목만 있는 곳도 도시일 수 없다. 도시의 핵심은 다양성에서 오기 때문이다. 진짜 이야기는 가장 인간적인 길, 골목을 타고 흐른다. 성요셉아파트가 비록 낡고 빛바랬지만 그곳에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골목이 지켜졌고,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중림창고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들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다. 물론 보관은 언제나처럼 중림창고의 몫이다. **K**

강은진 객원기자

예비사회적기업 '민들레마음' 손유린 대표

삐툴삐툴 희귀·난치질환 '꼬마작가' 그림을 '희망'의 굿즈로

“이 캐릭터는 알약을 먹어주는 양 ‘바바’예요.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는 아이가 누군가 자기 대신 약을 먹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렸죠. 그 옆에 ‘콩이’라는 캐릭터는 또 다른 친구가 집에 있는 강아지를 그리워하며 그렸어요. 입원 치료를 하는 아이들은 오랫동안 집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과 반려동물을 몹시 보고 싶어 해요.”

손유린 대표가 양손 가득 건넨 굿즈(팬 상품)마다 귀여운 동물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토끼·강아지·해파리·곰... 환히 웃고 있는 색색의 캐릭터들은 바바·콩이·토토·붕구·파리 등 제각각 이름도 지냈다. 모두 아이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림이라고 했다.

‘민들레마음’은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활용해 수첩·팬·자석·스티커 등 다양한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손 대표는 그렇게 만들어진 굿즈의 판매수익 가운데 절반을 다시 어린이병원에 후원한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것을 다시 아이들을 위해 쓰는



‘민들레마음’ 손유린 대표가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는 아이들의 그림으로 제작한 ‘붕구’ 인형을 들고 있다. 사진 C영상미디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이 기업의 비전이다. 바람에 날리 퍼지는 민들레 씨처럼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파급력을 가지길 바랐다. ‘민들레마음’이란 기업명에는 이 같은 소망이 담겼다.

손 대표는 수익창출만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그 행위 자체라고 이야기한다. 말 그대로 중증의 난치질환을 앓는 이들은 길어지는 병원 치료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

은 병을 치료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전문용어로는 ‘소아 청소년 완화의료’라고 한다. 완화의료는 병원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서비스로, 제대로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 아이에게는 필수지만 국내엔 인식과 인프라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손 대표는 완화의료의 일환으로 서울 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9곳과 협력을 맺고 아이들과 병원 안에서 그림을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활용해 만든 굿즈들. 사진 '민들레마을' 제공

그리는 '상상나라 그림교실'을 운영한다. '바바'와 '콩이'의 출생지가 바로 이 그림교실이다.

그림교실의 선생님이기도 한 손 대표는 경영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이다. 졸업도 전에 창업에 나선 이유가 있다. 그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병원 안에서 마주했다고 털어놨다.

병원 봉사활동이 창업의 계기가 됐다고.

남들보다 7년 늦게 대학에 갔다. 늦게 입학한 만큼 대학생살을 알차게 하고 싶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취직 하면 못할 것 같아 지금 할 수 있을 만큼 다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처음 간 서울대어린이병원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반갑다고 달려온 아이들의 몸엔 링거와 각종 의료기기가 부착돼 있었다. 놀란 내색을 감추고 놀아주는데 계속 옆에서 "빠빠" 하는 기계음이 났다. 신난 아이들의 표정과 대비되는 상황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경중은 달라도 모두 희귀·중증난치질환을 앓는 아이들인데 그들의 지상 최대 과제는 '어떻게 하면 더 신나게 놀까'였다. 대학생들은 1주일에 세 시간 놀아주는 게 전부지만 아이들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시험기간과 겹쳐 못 가기라

도 하면 아이들은 1주일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거다. 그게 너무 미안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싶었나?

어른들은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치료비 적게 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하지만 아이들은 완전히 다르다. 병원에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병원 안에서 교육도 잘 받아야 하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병원 안에서 치료와 교육, 놀이, 생활이 다 함께 이뤄져야 하는 거다. 그게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은 어린이병원 가운데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데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도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했지만 여전히 많은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일단 봉사자·관리자 수가 턱없이 모자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 완화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다.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려면 정부 지원도 중요할 듯하다.

완화의료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게 2018년인데 여전히 11곳의 병원에서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국내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아가 13만여 명에 이른다는 걸 감안하면 양적·질적으로 모든 게 무척 부족한 실정이다. 완화医료를 도입하려는 병원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의료인력을 필수로 뒤편에 두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높은 요구 수준에 비해 정부 지원은 2억 원 정도 밖에 안되니 참여하려는 병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완화医료를 도입하는 순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필수 의료서비스로서 완화의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아들은 어떤 것을 힘들어 하나?

내가 만난 아이들 중 과반은 소아암이었다. 아이들은 계속 몸이 성장하기 때문에 암세포도 빨리 자란다. 성인과 달리 전이 형태도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주만 해도 잘 놀던 아이가 며칠 만에 피부색이 달라질 정도로 병색이 짙어진 모습도 봤다. 또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 많다 보니 쉽게 무력해진다. 완치까지 1년이 걸릴지, 10년이



1 '상상나라 그림교실'을 통해 작품을 완성한 아이들에게는 상장과 '꼬마작가' 명함을 수여한다.
2 한 아이가 그린 '알약을 대신 먹어주는 양' 사진 '민들레마음' 제공

결릴지 누구도 알 수 없다. 부모들은 병이 유전질환이라는 생각에 자신을 탓하기도 한다. 조부모 등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경우도 봤다. 특히 환자 대부분이 6인 병동에서 생활하는데 90% 이상 엄마 보호자가 함께한다. 즉 어린이병동은 12명이 언제나 함께 생활하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 병동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크다. 병원 안에서 할 게 없으니 먹고 자고 스마트폰으로 영상 보고 하는 게 전부다. 온 가족이 아픈 식구에게 전념하니 환자의 형제는 소외되기 쉽다. 아이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림’을 통해 아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나?

창업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었다. 첫째, 아이들이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하자. 둘째, 아이들의 희망차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자. 즉 ‘감성팔이’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던 중 한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후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등 아홉 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을 맺고 ‘상상나라 그림교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으로 찾아가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나온 작품을 활용해 다양한 굿즈를 만든다. 주제 없이 아이들이 그리고 싶은 걸 자유롭게 그리도록 한다. 이게 고양이인지, 지렁이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도 상품이 된다. 그 정체가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니 말이다. 아이들의 그림으로 만든 100여 개의 굿즈는 네이버·카카오톡 스마트스토어, 전국 15여 개 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다. 수익의 절반은 어린이병원에 기부한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다시 아이들 자신을 돕는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림을 상품화하는 것만큼 그리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위안을 받는 게 느껴진다. 처음 만나면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아이도 그림을 통해서서는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잘하는 것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한다. 말보다 그림을 더 편하게 여기는 거다. 코로나19로 그림교실을 열지 못했을 땐 드로잉 키트(꾸러미)를 보내줬다. 봄엔 스티커로 꽃 만들기, 여름엔 부채 만들기 키트 같은 것들을 담았다. 눈비 맞을 일 없고 늘 온도와 습도가 일정한 병원에서 지내

는 아이들에게 계절을 선물하고 싶었다. 작품을 제출한 아이에게는 상장과 명함을 수여한다. 명함에는 이름과 함께 ‘작가님’이라고 써주는데 그걸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눠주고 다니는 모습이 무척 귀엽다. 누군가 ‘몇 학년이니’ 하고 물어보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난감해한다. 병원이 삶의 중심이 된 아이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꼬마작가’ 명함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가수 임영웅의 전국투어콘서트 굿즈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향후 사업의 방향성이 궁금해진다.

우리의 주 고객은 10~20대 여성이라 임영웅 씨 쪽에서 제안이 왔을 땐 놀랐다. 나중에야 느낀 건 아이들을 응원하는 마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다. 즉 ‘민들레마음’이 추구하는 가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다. 다양한 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이유다. ‘한 아이를 온전히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지 않나. 희귀·중증난치질환과 싸우는 아이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이들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 **K**

조윤 기자

왕년의 스타 총출동 무대·객석 하나로 어르신 한마음 축제

6월 13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25회 어르신 한마음 축제'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6월 13일 서울 장충체육관, 흥겨운 리듬이 펼쳐지는 무대 아래에 덩실덩실 춤사위를 펼치는 사람들이 한아름 물결을 이뤘다. '제25회 어르신 한마음 축제'를 즐기는 노인들이다. 무대 위로 올라온 가수들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어르신 한마음 축제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인한마음회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998년부터 개최해온 행사다.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껴온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린다.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소속 가수들도 무보수로 앞다퉈 공연을 펼친다.

한국연예인한마음회는 1981년 설립된 후 40여 년간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400회가 넘는 공연을 펼쳐온 단체다. 가수 김상희 이

사장을 필두로 50여 명의 연예인이 모여 이끌어어나가고 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가수 권성희를 비롯해 아나운서 김병찬, 가수 김국환, 남궁옥분, 설운도, 인순이 같이 원로 대중문화 예술인이 ‘마음’ 하나로 모였다. 이들은 한센병 환자가 모여 사는 소록도나 수해를 당한 지역 같은 곳을 찾아 봉사활동도 하고 어르신 한마음 축제처럼 큰 규모의 행사부터 쪽방촌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까지 다양한 경로공연 행사를 개최해왔다.

문화예술 주역이 된 시니어 세대

문화체육관광부도 원로 대중문화 예술인 활동을 지원해왔다. 이들의 활동 기회를 넓히는 일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에서 팬을 끌어들이고 있는 K-컬처가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기성세대부터 쌓아온

문화적 자원을 꼽을 수 있다. 이 자원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문체부가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문체부는 한국연예인한마음회 등과 함께 지역 순회공연 ‘낭만콘서트 5080’를 개최해오고 있다. 4월에는 전남 광양시에서, 5월에는 경남 고성군에서 공연을 열었다. 6월 13일 열린 어르신 한마음 축제도 그 연장에 있다. 이날 공연에는 3000여 명의 노인이 모였는데 가수 현숙, 김혜연, 최진희 등 35명의 연예인한마음회 회원이 잇따라 공연을 펼치며 관객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이날 공연장을 찾아 축사를 남겼다. 박 장관은 “K-컬처와 한류의 성과가 시니어 세대의 맘과 노고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세대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효정 기자



밀물로 바닷물이 빠진 노을전망대 해변.

김좌진·한용운의 고향, 천년 역사 홍성 ‘천년 여행길’ 따라 역사의 시간을 느끼다

박동철 <여행이 즐거워지는 사진찍기> <대한민국 주말가족여행> <사진의 구도 구성> <슬로시티 걷기여행> <신께서 허락한 나만의 별> <베트남 사진여행> <가볼까 두근두근 문화유산 여행> 등 40년을 넘긴 작품 활동을 통해 많은 책을 집필했다.

충남 태안 천수만에서 내륙까지 이어지는 내포 지방은 고려 때부터 교역 요충지였다. 그 중심이었던 홍주는 조선시대 충청도 4대 도시에 들 만큼 크게 성장했다. 홍주군은 일제강점기에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며 결성군과 병합됐다. 두 지명에서 한 글자씩 따와 홍성(洪城)으로 명명했다. 근래에는 다시 옛 지명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홍주라는 명칭을 쓰기도 한다. 홍성은 동학농민봉기(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된 곳으로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던 마을이다.

천년 역사의 홍주성 안쪽 옛 동헌 자리에는 홍성군청이 자리 잡고 있어 옛 모습을 잘 지켜내고 있다. 성벽 길을 따라 이어지는 역사의 시간을 느껴보자. 홍주성은 치욕스러운 을사늑약(1905) 후 항일운동의 불씨를 댕긴 곳이기도 하다.

애국정신의 상징 같은 홍주성을 기억하며 홍성의 특별한 걷기 코스인 ‘천년 여행길’을 천천히 걸어보자.

홍주성 천년 여행길을 걷다

‘천년 여행길’은 고암길을 시작으로 장터길, 매봉재길, 홍주읍성길과 추억의 골목길로 이뤄져 있다. 그 시작은 김좌진 장군 동상 로터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원점 회귀 코스로 총 5km 정도가 소요되지만 홍주성, 명동거리, 전통시장 등을 거치는 이 코스는 재미난 볼거리가 많아 지루하지 않다. ‘김좌진 장군 동상→홍주의사총→홍주향교→망화문(북문)→조양문(동문)→홍주아문→여하정→홍주성역사관→홍화문(남문)→감옥터→명동거리→홍성전통시장(홍성보물찾기)→김좌진 장군 동상’ 순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추천한다.

홍성은 김좌진의 고향이다. 김좌진 집안은 한 해에 거둬들이는 곡식이 3000석에 달한 거부였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 의무)’를 실천하는 가문이었기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지만 농민들이 나서 김좌진의 집안을 지켜줬다. 김좌진은 소작인들에게 토지를 모두 분배해주고는 노비들을 해방시켰다. 또 90여 칸의 자기 집을 개조해 호명학교를 설립하고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투척했다. 1991년 김좌진의 생가가 홍성 갈산면에 새로 지어졌다. 백야공원과 기념관을 둘러보면 그의 진심 어린 나라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홍주의사총은 1906년 홍주성에서 일본군에 대항해 싸우다 전사한 의병들을 기리기 위한 묘역이다. 홍성군민의 애국정신을 엿볼 수 있다. 충남 기념물 제135호인 홍주향교는 유교 성현을 모시는 동시에 지방교육기관으로 홍성에는 결성향교와 함께 두 곳이 남아 있다. 홍주성의 북문인 망화문은 가장 최근인 2020년 용성과 육축부가 재건돼 이곳이 홍주성의 북쪽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홍주성의 주 관문 격인 조양문을 지나면 성벽이 눈에 들어오고 왼쪽으로 우물과 죄인을 가두던 홍주옥이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는 많은 동학도가, 1895년 을미 홍주의병 때는 의병 지도부 23명이 이곳에 갇히기도 했다.

충청도 최초의 순교자인 원시장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이곳에서 순교해 성지로 알려져 있다. 홍주아문은 조선시대에 동헌을 출입하는 문이었다. 지금은 그 자리에 홍성군청이 들어서 있다. 홍주아문에 들어서면 수령 650세의 신령스러운 느티나무 두 그루가 보이고 군청 건물



(위) 속동전망대는 소나무가 가득해서 숲향을 맡으며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아래) 1906년 홍주성에서 일본군에 대항해 싸우다 전사한 의병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묘역 홍주의사총.



백야 김좌진 장군의 동상.



1 홍주읍성의 남문인 홍화문은 유일하게 성벽과 연결돼 있다. 2 어사리노을공원의 특별한 조형물. 3 만해문학체험관은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도 운영한다.

뒤쪽으로 옛 동헌인 안회당과 아름다운 연못의 여하정이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어 관공서가 아닌 공원과 같은 편안함을 준다.

170년 보부상 전통 있는 홍성전통시장

홍주읍성을 나와 명동거리를 지나면 마지막 코스인 홍성전통시장으로 이어진다. 매월 1일과 6일에 장이 열리는 홍성전통시장은 170년 보부상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 역사가 무려 80년에 이른다. 서해의 싱싱한 해산물과 내륙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육가공 식품들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아직도 훈훈한 옛정을 느낄 수 있다. 단돈 4000원에 맛있는 잔치국수를, 7000원에 진한 국물의 소머리국밥을 맛볼 수 있는 홍성전통시장은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곳이다.

홍성은 내륙 지방으로만 알지만 천수만을 끼고 있어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천수만 A방조제로부터 홍성방조제까지 이어지는 12km의 해안도로에는 궁리포구, 속동전망대, 어사리노을공원과 남당리 노을전망대 등 곳곳에 명소가 늘어서 있다. 덕분에 멋진 해안선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특히 남당리에는 꽤 큰 규모의 수산시장이 있어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다. 봄이면 새조개 축제가, 가을이면 대하 축제가 열리는

이곳은 사시사철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

남당리에는 특별한 노을 명소가 있어 눈이 즐겁다. 해질 무렵 남당리 백사장의 노을전망대에 올라가 오렌지빛의 황홀한 하늘을 바라본다면 홍성 여행의 깊은 감동을 더욱 진하게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곳에 가면 만해문학체험관도 들러야 한다. 만해 한용운 시인은 홍성의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였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국어시간에 꼭 한번은 외우고 지나가야만 하는 특별한 시다. 1879년 결성면 초가에서 태어난 한용운은 6세부터 한학을 배웠고 9세 때 문리에 통달해 신동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올곧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성품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26세에 백담사에서 정식으로 출가했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다.

1992년 생가를 중심으로 복원작업을 했고 한용운 시인의 흉상을 건립했다. 2007년에는 만해문학체험관을 개관해 유품 6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문학관을 지나 만해 한용운 생가 앞마당에는 태극 문양의 민족시비공원이 조성돼 있다. 독립선언서를 새긴 조형물과 민족대표 33인의 사진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 초가로 지어진 선생의 생가지 왼편에는 만해사라는 현판이 붙은 사당이 마련돼 있다. 안으로 들어가면 승복을 입고 있는 한용운 선사의 영정과 위패가 있어 숙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게 된다. **K**

홍성전통시장 장터 보물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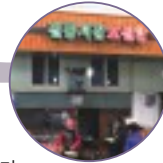
대교리 석불입상
(대교리 놀이터)
대교리 석불입상은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모루·나무통
(홍성대장간)
홍성대장간은 3대에 걸쳐 100여 년이 넘도록 세월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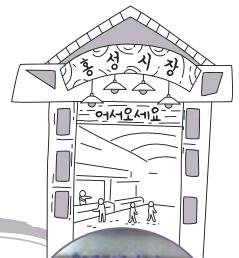
홍성천뽕뽕다리
(홍성천 위·원예농협 앞)
홍성천뽕뽕다리는 구멍이 뽕뽕 뚫렸다고 해 붙은 이름이다. 공사장에서 안전 발판으로 사용했던 강철판으로 만든 다리(아나방)다.

보신알
(곤계란집)
보신알은 병아리가 되지 못해 부화 중 죽어 나온 계란이다. 노화방지·신경통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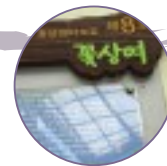
홍성천 벽화
(홍성천하상 주차장 벽면)
홍성천 벽화는 홍성천 하상 주차장에 있는 길이 약 200m의 벽화다. 홍성전통시장의 과거를 볼 수 있다.

재봉틀
(홍주천막사)
홍주천막사의 재봉틀은 40여 년 전 서울 청계천에서 당시 8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것이다.



되·말
(관성상회)
되·말은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계량 단위다. 현대에는 점차 사용 빈도가 줄고 있지만 시골장에서는 아직도 되와 말을 쓰고 있다.

꽃상여
(홍성꽃상여)
꽃상여는 매장이 성행하던 과거에 많이 사용됐으나 화장이 보편화돼 현대에선 자취를 감췄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상여집이 있었다.



돈괘
(대송철물)
돈괘는 돈통을 말한다. 요즘에는 금고를 주로 쓰지만 과거에는 돈괘를 사용했다. 현재 돈괘는 해체돼 전시용으로 보관 중이다.

염원도끼
(홍성떡방앗간)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있던 시절 아들을 낳지 못한 며느리들은 대장간에서 작은 도끼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었다.



자료 홍성군

쌍둥이의 사회생활

뜻밖의 금칙어



확신의 E 성향



1+1=완성체



하루 10분씩, 자연 그림을 그렸을 때

서점가의 종합 베스트셀러 코너에 자기계발서가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다. 대개의 자기계발서는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의 양극단을 설정한 뒤 독자에게 성공과 부를 위해 좀 더 열정적이고 공격적인 삶을 살 것을 요구한다. 뚜렷한 대조를 통한 동기부여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동기부여가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될수록 마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성공에 대한 집착이 과하면 이기적인 판단을 하기 쉽고 습관적으로 상대를 의심하며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 경제적 부를 이룬 사람 중에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정서적 허기를 호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미국의 존 바그(John Bargh) 예일대 교수는 성공 지향적인 마음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 가지 실험을 통해 보여준다. 연구팀은 18~22세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월급, 승진, 성공 등 돈과 관련된 단어 다섯 가지를 주제로 줬다. 다른 그룹에는 하늘, 나무, 구름 등 자연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주며 10분 동안 글을 쓰게 했다.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글쓰기가 끝났을 때 실험자는 일부러 수십 자루의 연필 뭉치를 실수인 척 떨어트리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했다. 그 결과 돈과 성공에 관한 글을 쓴 그룹의 70%는 떨어진 연필을 줍고 있는 실험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반면 자연에 관한 글을 쓴 그룹은 70%의 학생이 실험자를 도왔다. 월급이나 승진, 돈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타성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이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글쓰기를 끝낸 학생들이 자신이 쓴 글을 주제로 토론하기 위해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의자를 배치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1m 정도의 거리를 둔다. 1m는 서로 팔을 뻗었을 때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다. 실험 결과 자연을 주제로 글을 쓴 그룹은 가깝게는 0.8m에서 멀게는 1.2m까지 평균 1m 정도 거리를 두고 의자를 배치했다. 반면 성공을 주제로 글을 쓴 그룹은 평균 1.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의자를 배치했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의자를 놓은 이유는 조금 더 상대를 잘 관찰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단 10분간의 글쓰기 실험만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매일같이 돈과 성공을 생각하며 지내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이기적이고 배타적으로 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기계발을 위한 인내와 노력은 우리의 삶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이 없다면 자신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키는 적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도 존 바그 교수의 실험처럼 하루에 10분 정도 자연에 대한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 물론 산이나 바다를 찾아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면 좋겠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바다와 구름을 생각하며 내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단한 일상이 똑같이 반복되더라도 마음만은 푸른 하늘의 여유로운 구름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평안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랬을 때 성공을 위한 노력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열정이 될 수 있다. **K**



신기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마인드풀링(Mindfulness) 대표이자 '마음 찾기' 유튜브를 운영하며 한부모가정 모임인 '그루맘' 교육센터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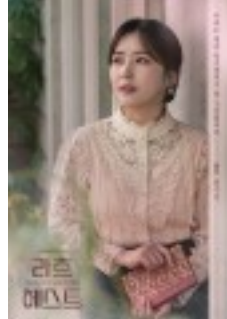
열정적인 스페인의 정취를 유쾌한 발레와 함께



공연 돈키호테

2023 발레축제를 위해 광주시립발레단이 준비한 공연이다. 광주발레단은 1976년 10월 창단된 프로발레단으로 우리나라 유일의 시립발레단이다. 이들은 국내 다른 시·도와 지속적인 교류 공연을 이어왔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초청·교류 공연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고전발레 가운데 가장 유쾌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돈키호테는 원작과 달리 이발사 바질과 여관집 딸 키트리리의 사랑을 다룬다. 지중해 연안의 무대 위 광장에서 투우사, 집시들의 춤 등 열정적인 스페인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광주시립발레단은 기존 돈키호테에 안무가 크리스토프 노브 그로츠키의 현대적인 재해석을 입힌 무대를 선보인다. 그는 슈투트가르트 제작감독이자 세계적인 안무가 존 크랭코와 호흡하며 다양한 발레 공연을 선보여왔다. 키트리 역은 강은혜·강민지·조희원이 맡았다. 보그단 M. 플로피누·박관우·이택영이 키트리리의 연인 바질리오 역으로 무대에 오른다.

기간 6월 24~25일 장소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뮤지컬 라호 헤스트

수필가이자 화가, 평론가였던 김향안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김향안은 시인 이상과 화가 김환기의 아내이기도 하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향안은 1936년으로 돌아간다. 다방 낙랑파라에서 시인 이상을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시간이 순서대로 흐르기 시작한다. 향안

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되돌아보며 그 일들을 겪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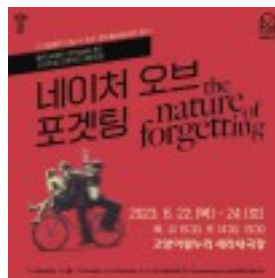
기간 ~9월 3일까지 장소 드림아트센터 1관



뮤지컬 보이A

조나단 트리겔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소년은 긴 시간 복역을 마치고 잭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한다. 보호관찰관 테리의 도움으로 가석방된 잭은 새 직장을 구하고 친구를 사귈다. 어느 날 한 사건을 계기로 잭의 과거가 세상에 알려진다. 잭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차갑게 돌변하고 그를 밀어내기 시작한다.

기간 ~8월 20일까지 장소 예스24스테이지 3관



연극 네이처 오브 포겟팅

영국을 대표하는 연극단체 시어터리(Theatre RE)가 한국 관객을 만난다. 2017년 영국 런던 국제마임 페스티벌과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공식 작품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치매에 걸린 톰의 이야기를

를 통해 인간의 유약함과 기억이 사라진 이후에도 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연은 배우들의 신체 움직임, 음악, 빛, 오브제로 전달하는 피지컬시어터로 진행된다.

기간 6월 22~24일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공연 랜들 구스비 바이올린 리사이틀

바이올리니스트 랜들 구스비가 처음으로 내한한다. 바이올린의 대가 이차크 펄만의 제자인 그는 2020년 24세 나이로 데카 클래식과 독점계약을 맺으며 이름을 알렸다. 공연에서는 릴리 불랑제의 '두 개의 소품', 라벨의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윌리엄 그랜트 스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를 연주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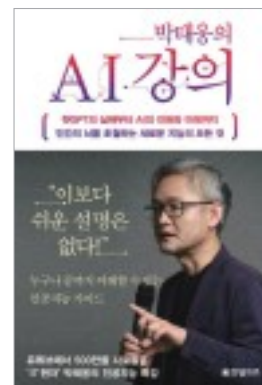
일시 6월 22일 장소 롯데콘서트홀



공연 산조

산조는 다양한 장단이 모이고 흩어지며 선율을 자아낸다. 정통과 즉흥이 교차하는 방식이 재즈와 비슷하다. 공연은 전통 기악 독주 양식인 산조에 담긴 한국적 아름다움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디자이너 정구호가 연출을 맡았고 국립무용단 수석 단원 출신이자 경기도무용단 상임 안무가인 최진욱이 안무를 맡았다.

기간 6월 23~25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도서 박태웅의 AI강의

유튜브와 미디어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설명해온 저자가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AI의 다양한 측면을 두루 보고 그것이 가진 함의와 품고 있는 위험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내고 있다. 또한 해외 논문 100여 개와 문서, 최신 뉴스들을 분석해 그동안 미디어에서 다루지 못했던 깊이와 전문성을 더했다.

저자 박태웅(한빛비즈)

장가현 기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공연은?



오페라
나비부인
기간 6월 23일~
7월 8일
장소 대구오페라하우스



공연
신카이 마코토
영화음악 콘서트
일시 6월 25일
장소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뮤지컬
파리넬리
기간 7월 7~8일
장소 익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공감 칭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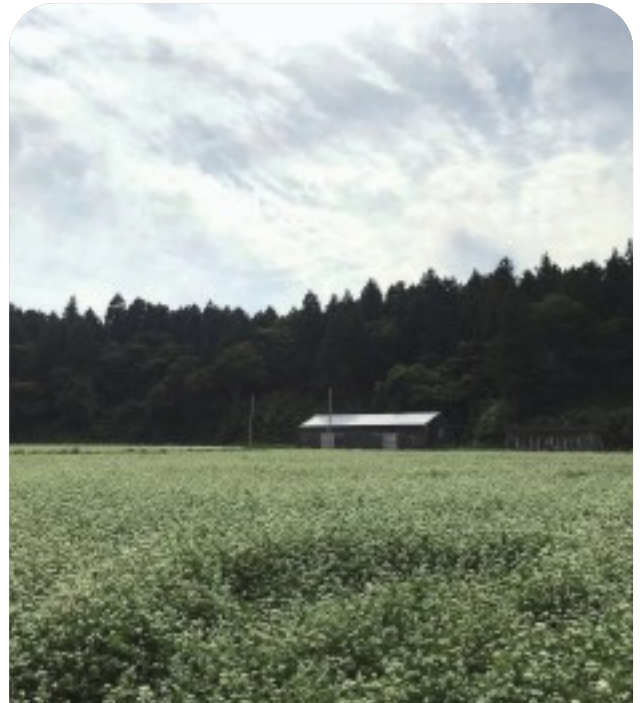
708호 미술평론가의 해설이 있는 공감갤러리는 미술작품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의 작품소개가 아주 잘돼 있어 미술에 완전 무지했던 저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차츰 미술전시회에도 발걸음을 하는 계기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공감갤러리 한 장으로도 완벽 공감을 이끌어내는 <K-공감>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지식창고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탐독하고 있습니다.

전숙원 전남 순천시 조곡동



707호 불의의 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입었지만 다시 딛고 일어나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챔피언에 오른 최창성 파티시에는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장애를 잊고 장인이 돼 “자신의 한계를 결정짓지 말라”는 말에서 도전과 희망의 정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좌절하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지네요. 삶의 활력을 주는 <K-공감>,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강예숙 인천 연수구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

결혼기념일을 맞아 남편과 제주를 찾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푸른 하늘과 짙은 초록에 마음을 절로 뺏겼는데요, 마침 아름답게 피어 있는 메밀꽃을 보며 하하 호호 웃게 되더군요. 신선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니다. 새하얗게 펼쳐진 메밀밭을 걷다 보니 드라마 <도깨비> 속의 도깨비 신부가 된 느낌도 들었고요, 역시 여행은 다시 일상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날씨도 좋은데 이번 주 가까운 곳으로 여행 어떠세요?

박연옥 서울 마포구

디지털 <K-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gonggam.korea.kr

 blog.naver.com/mcst_pr

 v.daum.net/channel/3094

 facebook.com/wegonggam

 youtube.com/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K-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칭찬합니다'와 '공감 특이 도착했어요'는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6월 28일까지 이메일(gonggam@chosun.com)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에게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지구촌 청소년 대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Draw your Dream!



행사기간 2023년 8월 1일 ~ 12일, 12일간

행사장소 전라북도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참가규모 170여개국 4만 3천여명 (스카우트대원 및 지도자)



홈페이지



테이스톡



인스타그램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25th World Scout Jamboree - 2023 SaeManGeum



한국스카우트연맹

Korea Scout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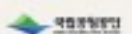
OURHOME

SEOUL TENT

KBS

SKY TV

kakaomap



HBAF

POCARI SWEAT

BFL

KD KD 골드그룹

대한항공

TERRA

unielux

NH농협은행

Kayak GLS



국가보훈부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삼건
매버릭

국립서울현충원 돛자리 영화제 & 토크콘서트

돛 **AMAZING CEMETERY**
을 포커다!!



2023.6.24.(토) 19:00

국립서울현충원 거례얼마당(잔디광장) - 무료입장

기념공연 | 호국영화 리뷰 <빨간 마후라> | 토크 콘서트 | 초청영화 <삼건 매버릭>

당일 우천시 연기됩니다.

선착순 1,000분에게 현충원 굿즈 '야외 돛자리'를 드립니다.

